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

2019 년 8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주 현 주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

지도교수 김 홍 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주 현 주

주현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8 월

위 원 장 \_\_\_\_\_ 조 병 희 (인)

부위원장 \_\_\_\_\_ 조 성 일 (인)

위 원 \_\_\_\_\_ 김 홍 수 (인)

## 국문초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는 고용률이 감소하는 바, 이는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는 양육, 가사노동, 직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심리적 변인으로써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취업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육아를 비롯한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 등 포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이들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자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와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 2개의 비교군을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써 여성가족패널에서 제공하는 6차년도(2016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연구 대상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 220명,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 303명,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 1058명이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상정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각 변인의 기초분석을 수행하였고, 각 집단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요인 파악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의 매개 및 조절효과의 기능을 탐색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우울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직장-가정 갈등, 가구총소득, 일만족도, 가족가치관이었다.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영향 요인으로 남편가사분담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

준이었으며,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는 성역할태도, 직장-가정 갈등, 가구총소득, 가족가치관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우울 관련 요인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는 가족가치관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가치관이었으며,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남편가사분담만족도, 교육수준, 직장-가정 갈등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는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 모두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상기 연구결과를 통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가족가치관이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우울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는 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 및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우울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같은 기혼 여성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연령 및 취업 여부에 따라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을 파악하여, 기혼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자녀의 연령 및 취업 여부에 따른 미시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스트레스 및 우울 경감,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

학 번 : 2016-26921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 목적 .....	4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	6
제 1 절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	6
1. 일상생활 스트레스 .....	6
2. 우울 .....	7
3.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	9
제 2 절 기혼 직장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 .....	10
1. 한국 기혼 직장여성의 현황 .....	10
2. 기혼 직장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 요인 .....	13
3.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 관련 요인 .....	15
제 3 절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 .....	21
1.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 .....	21
2.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 관련 요인 .....	22
3. 기혼 여성 집단 간 비교 연구 .....	23
4.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 .....	25
제 3 장 연구방법 .....	26
제 1 절 분석자료 및 대상 .....	26
제 2 절 연구모형과 변수 .....	27
1. 연구모형 .....	27
2. 연구변수 .....	30

제 3 절 분석방법 .....	40
제 4 장 연구결과 .....	42
제 1 절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	42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 .....	42
2.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	45
제 2 절 연구 대상자의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가정, 직장 요인 비교 .....	46
1. 연구 대상자의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요인 비교 .....	46
2. 연구 대상자의 집단 간 가정적 요인 .....	48
3. 연구 대상자의 집단 간 직장 요인 .....	50
4. 연구 대상자의 집단 간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비교	51
제 3 절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 요인 .....	52
1.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단변량) .....	52
2. 미취학 전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 요인과의 관계(다변량) .....	55
제 4 절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59
1.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단변량) .....	59
2.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다변량) .....	62
제 5 절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	65
1.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 (다변량) .....	65
2.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다변량) .....	74
<b>제 6 절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b> .....	83
1.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 (다변량) .....	83
2.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다변량) .....	87
<b>제 5 장 고찰</b> .....	91
1. 미취학 취업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 특성 .....	90
2.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 요인 .....	92
3.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	96
4.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	97
<b>참고문헌</b> .....	102
<b>Abstract</b> .....	116



## 표 목 차

[표 1]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	30
[표 2] 우울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	31
[표 3] 가족가치관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	32
[표 4] 성역할태도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	33
[표 5] 일만족도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	35
[표 6] 직장-가정 갈등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	36
[표 7] 복리후생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	37
[표 8] 본 연구의 변수 .....	38
[표 9]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 ...	44
[표 10]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정도 .....	45
[표 1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비교 .....	47
[표 12] 연구 대상자의 가정적 요인 비교 .....	49
[표 13] 연구 대상자의 직장 요인 비교 .....	50
[표 14]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수준 비교 .....	51
[표 15]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단변량) .....	54
[표 16]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 요인과의 관계(다변량) ...	58
[표 17]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단변량) .....	61
[표 18]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과의 관계(다변량) .....	64

[표 19]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	66
[표 20]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단변량) .....	68
[표 21]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	69
[표 22]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 .....	71
[표 23]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	72
[표 24]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 .....	73
[표 25]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	75
[표 26]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	77
[표 27]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	78
[표 28]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	79
[표 29]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	80
[표 30]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	81
[표 31]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 .....	84
[표 32]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 .....	85

[표 33]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 .....	86
[표 34]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	88
[표 35]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	89
[표 36]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	90

## 그 립 목 차

[그림 1]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	11
[그림 2] 근로형태별 취업자 .....	11
[그림 3] 연령대별 여성 고용율 .....	12
[그림 4] 맞벌이 부부의 주중 시간 배분 .....	13
[그림 5] 연구모형 1 .....	28
[그림 6] 연구모형 2 .....	29
[그림 7] 연구모형 3 .....	2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전체 기혼 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8). 여성의 고용률은 ‘M자형’ 곡선형태의 양상으로,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69.8%로 가장 높고 30대는 58.1%까지 감소하였다가 40세 이후는 재취업으로 69.7%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통계청, 2018). 고용률이 감소하는 30대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연령대와 일치하는 바, 이는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 가사노동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등 전업모가 경험하는 것 이상의 일상 속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양소남 & 신창식 2011; 최효식, 2013). 또한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영향으로 다중역할의 부담은 계속되어 취업모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김기현, 2000; 임종호, 2014).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남성(1.8%)에 비해 여성(7.1%)이 약 4배 가량 높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국민건강통계 국민영양건강조사, 2016), 기본적으로 여성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더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정신적인 요소는 더욱 민감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모는 가사 및 육아스트레스에 이어 직장스트레스까지 더 얹혀진 다양한 스트레스를 감당해 내고 있다. 주간 시간에는 직장에서의 업무상, 대인관계상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퇴근 후에는 가사와 자녀양육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처리로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즉, 그들의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는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써, 보편화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Kraaij, Garnefski, & Maes, 2002).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는 직장, 가정생활의 양립에 따른 역할갈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Grzywacz & Marks, 2000; Behson, 2002; 허순금, 2006; 양소남 외, 2011). 일 가정 양립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는 직장 및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이유로 스트레스 뿐 아니라 우울도 경험한다는 연구가 있다(이정은, 2010).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역할부담으로 야기된 높은 압박감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xburgh, 2012). 우울은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서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정생활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이장호 & 김정희, 1988). 이와 같이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는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많으며, 이로 인해 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earlin and Schooler(1978)은 개인이 자신에게 내재된 심리적 특성이 대처의 한 종류로 작용하여 특정 상황을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우울 등과 같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거나 조절한다고 하였다. 매개역할을 하는 심리적 특성을 지닌 변수는 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과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Pearlin, Menaghan, Lieberman, & Mullan, 1981).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녀연령이 영향 변인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이 관계는 더욱 강하게 작용함을 설명하고 있다(이윤주 외, 2012; Weitlauf, Vehorn, Taylor, & Warren, 2014).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취업 여성의 증가 현상은 가사에 국한되었던 전통적인 가치관과 대립하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취업여성의 다중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이 우울 증가에 영향 요인이 되므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는 다중역할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근 일 가정 양립을 통해 새로운 긍정적 에너지를 얻고 직업역할과 어머니역할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요인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취업모의 일상생

활 스트레스와 우울은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Voydanoff, 2005).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경우를 살펴야하고, 또한 스트레스는 양육 스트레스를 포함한 일상에서의 전반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을 함께 살펴야 함에도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제시해준다. 선행연구는 양육 스트레스를 독립 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임종호, 2014; 이희정, 2017), 양육 스트레스 또는 직장-가정 갈등이 우울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Grice et al., 2007; 이정은, 2010; 최은주 외, 2017)와 같이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단편적 요인만을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건강은 육아, 가정, 직장 요인 등 개인적, 사회적인 영역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Moss, 2002). 따라서 양육 뿐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보다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살펴야 한다. 더불어 정신적인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밀접한 우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 육아 등 기혼 여성들이 고유하게 경험하는 요인들을 부각하여 조사한 ‘여성가족패널’ 자료(2016년도)를 이용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상황과 우울을 함께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의 연령대와, 취업여부가 다른 두 개의 비교군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미취학 자녀가 있으나 전업모인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였고, 같은 취업모이나 자녀가 성장한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를 또 다른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총 3개의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로 진행하였다. 각 집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의 체계적인 차원의 요인도 함께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와 같은 중간입장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개효과 혹은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탐색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건정책학적 접근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과 함께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취업모에게 민감한 이슈인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와 같은 변인이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 혹은 조절효과의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탐색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련 요인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개의 비교군, 즉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와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파악한다.

2.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 요인과 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한다.

3.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 관련 요인과 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한다.

4.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와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5.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와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파악한다.

6.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와 초  
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  
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조절효과가 있는지 파악한다.



##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2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절에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개념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 2절에서는 기혼 직장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을 살펴본 문헌을 정리하였으며, 제 3절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연구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제 1 절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 1. 일상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어떤 요구적 상황이 개인의 대응 능력에 부담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종류의 경험(박경, 2004)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요인에는 생활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일, 만성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는 특수 상황, 일상생활에서 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까지 다양한 요인이 포함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매일 겪게 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daily stress), 만성적 고통을 주면서 지속되는 만성 스트레스(chronic strain), 특정한 사건으로 생활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게 되는 주요 생활사건(life events) 스트레스로 분류한다(김성경, 2007; Lazarus, DeLongis, Folkman & Gruen, 1985). 일상생활의 사소한 생활사건(daily stress)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주요 생활사건(major life events)보다 부적응과의 연관성이 더 크다고 보고한(Holahan & Belks, 1984)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보다 더 살펴야 하는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개인이 경험한 긴장 상태와 위협 요인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긴장, 압박감을 유발하는 현상과 위협 상황에서 경험하는 압력, 좌절, 갈등 및 불안상황이며(Mccubbin, 1979), “개인의 복지에 가

장 중요하고 해롭다고 평가된 일상생활의 경험들과 조건들”로 개념 지어진다(Lazarus & Folkman, 1984). 이러한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매일 일상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짜증, 실망, 고민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인간의 정상적 발달과정과 가족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며(Groncik, 1975)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을 통해 유발된다(Crnic & Greenberg, 1990). 스트레스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신체의 반응, 자아위협에 대한 반응, 환경적 요구와 유기체의 반응능력간의 불균형, 그리고 자원의 위협이나 손실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수반되는 정신, 신체적 질환을 촉발하고, 개인의 전반적인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다(Theorell, Ahlberg-Hulten, Jodko, Sigala, & Torre, 1993).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개인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더 큰 영향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우울

우울은 기분이 저조한 상태로,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결과의 대표적 증상이며 세계질병부담에서 사회적 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다(Yearwood & Siantz, 2010). 우울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으로 “정신질환에 있어 감기와도 같이 흔한(the common cold of mental illness)”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O’leary, 1990). 그러나 우울증상을 가벼운 것으로 여겨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심각한 정신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양재곤, 1982). 권석만(2000)은 일상의 상실과 실패로 인해 일시적으로 우울기분을 느끼는 것은 심리적 반응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울이라 하였다. 그러나 우울한 상태가 심각하게 높아 결과적으로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병적인 우울로 구분할 수 있다.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IV, 1994)에 의하면 우울증은 기분장애(mood disorder)에 속하며 우울한 정서의 상태 뿐 아니라 복합적인 정신·신체 증상들, 자살 충동 및 시도, 불면증, 체중 변화, 식욕 변화, 주의집중력 감퇴, 의욕 상실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신경림, 2001, 재인용). 우울 증상은 부정적인 기분이나 경미한 수준의 우울감에서부터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일상적 행동기능상 손상을 유발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연속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울증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임상 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조화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ed Mood Scale)은 우울증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CES-D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비교적 짧은 것이 특징이며 설문 당시의 응답자가 우울증상을 자가 보고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Radloff, 1977).

우울은 심리사회적 기능 및 소득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aves & Rush, 1984; Karpansalo, Kauhanen, Lakka, Kaplan, and Salon, 2005; 김원 외, 2007; 신아영 & 채정호, 2011). Eaves & Rush(1984)는 우울증을 가진 여성과 우울증이 없는 여성을 비교한 결과 우울증이 있는 여성에서 부정 정서와, 역기능적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신아영 외(2011)는 우울과 불안장애가 있는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부정정서를 조절함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부정정서 경험이 심리 건강과 사회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원 외(2007)는 우울증상이 있는 근로자의 결석 및 조퇴가 비우울 근로자보다 높고 이로 인해 직업적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Karpansalo et al.(2005)는 우울증상이 높은 근로자는 우울증상이 낮은 근로자에 비해 평균 1.5년 빨리 은퇴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우울은 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개인 및 가구의 사회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3.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스트레스는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에 따른 정신, 신체적 질환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 된다(홍경자 외, 2002).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들(Nolen-Hoeksema, Girgus, & Seligmn, 1992; Compas, Grant, & Ey, 1994)에서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인자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 소인을 가진 사람의 증상을 발현시키는 위험인자로 작용한다(이화영 & 함병주, 2013).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스트레스로 귀결이 아닌 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까지 부정적 결과가 확장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가 나타나면 반드시 우울이 결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작은 긴장요소들이 모여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이를 보상할 정적 경험이 없는 경우, 우울을 야기함을 설명하고 있다. 즉 누적된 일상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대처능력을 넘어서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나 욕구좌절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경우, 강화체계의 기능을 담당하는 통합성을 붕괴시켜 결국 우울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한다(김정희, 1985). 이를 통해 스트레스는 우울의 큰 원인이자 서로간의 관련성이 높은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과정 이론(stress process model)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우울사이에는 매개요인이 있는데 이 매개요인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arlin et al., 1981).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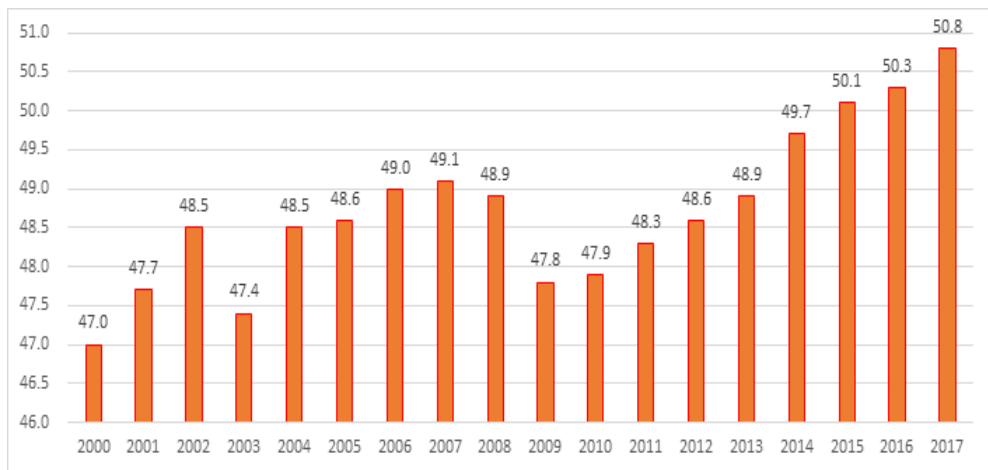
## 제 2 절 기혼 직장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

### 1. 한국 기혼 직장여성의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2018)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0년 27%에서 2017년 50.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부터 2017년까지의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전체적으로 볼 때, 증감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체적인 경향성은 지속적인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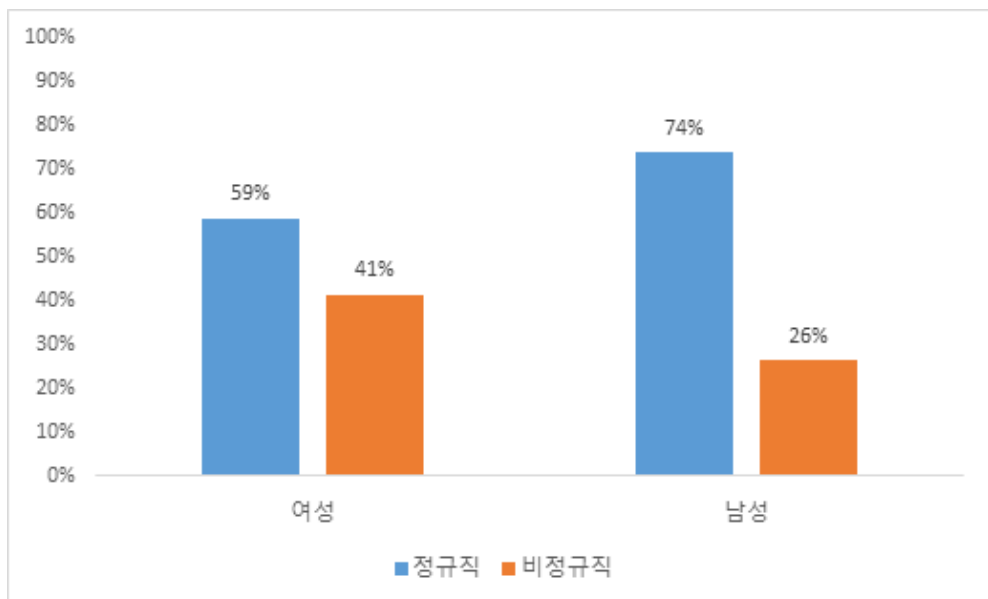
근로형태별로의 성별차이를 나타낸 [그림 2]에서는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41%로 26%인 남성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류임량(2009)의 연구에 따르면 4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저임금,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과 양육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다가 40대 이후 경제활동에 재참여하게 되지만 경력 단절로 인해 남성에 비해 소득 및 고용의 질적 측면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림 3]에서 연령별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30세 이전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30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후, 40세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곡선을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30대에 결혼 임신 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이다(통계청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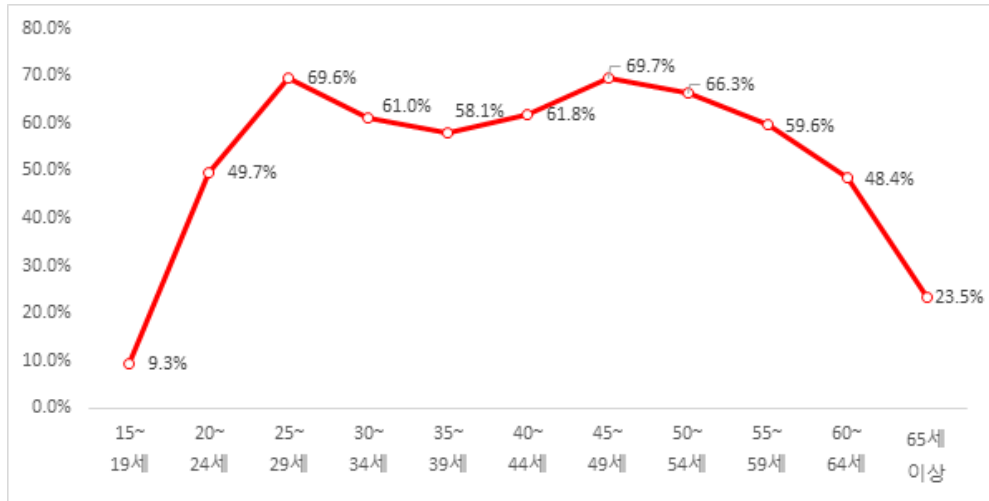
[그림 1]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출처 : 통계청 (2018)



[그림 2] 근로형태별 취업자

출처 : 통계청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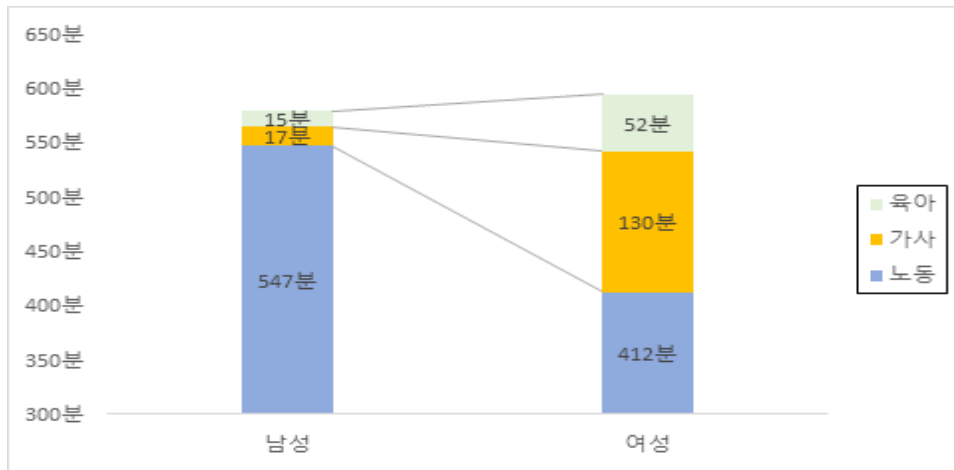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출처 : 통계청 (2018)

양소남 외(2011)의 연구에서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가족 양립 고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들은 양육대안의 부재, 자녀에 대한 죄책감,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한 역할부담, 시간배분의 어려움, 가족친화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 갈등과 긴장이 연속되는 삶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부담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활시간조사’를 바탕으로 ‘일 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연구결과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주중 노동시간이 남편 546.8분, 아내 412.6분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1.3배 정도 길었다. 주중 가사시간은 남편 17.4분, 아내 129.5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7.4배 길었다. 주중 육아시간도 남편 14.9분, 아내 52.2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3.5배 많았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일수록 육아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사 육아 시간이 절대적 수치로도 매우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맞벌이 가구가 높아졌으나 무급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박기남, 2009; 조성호 & 김지원, 2018).



[그림 4] 맞벌이 부부의 주중 시간 배분

출처: 조성호&김지원(2018)

## 2. 기혼 직장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 요인

기혼 직장여성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은 주로 양육 스트레스, 가사노동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의 특징적이고 단편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혼 직장여성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스트레스는 직장 스트레스, 가정 스트레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까지 통합적인 스트레스를 일상 전반에 걸쳐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관련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이 있었다.

먼저 편은숙(2004)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의 변화 증가되어 관리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긴장이나 책임이 늘어나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제시하였다. 반면 이안나와 신효식(199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은 30대 주부보다 20대 주부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 및 출산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의



적응에 어려움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고 하였다. 교육수준 관련한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이지현, 2011)와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양이 적다는 연구(양심영, 2014)가 있었다. 이는 학력이 높은 경우 가정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풍부하고, 스트레스의 원인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소득 관련한 영향요인의 경우 취업모는 가구총소득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고 하였는데, 이는 수입이 높아질수록 자녀 양육에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 대체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지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정애, 2010).

둘째, 가정적 요인으로서는 가사노동, 양육, 역할인식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부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양에 비해 가치나 보상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호나 적성과 관련 없이 부과되는 단순 노동이기에 일상에서 가사노동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김경아, 1990). 최근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 공동으로 가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양육은 여전히 여성이 주로 수행하고 있다(서영주 외, 2007). 이로 인해 많은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참여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han, 1994).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는 배우자의 지지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고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은실 & 최혜영, 2008). 또한 역할 인식의 경우 Ventura(1987)은 어머니의 경우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일-가족간 책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중한 역할분담과 관련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라는 맥락에서 특정한 사건이 없이도 지루함, 좌절, 당황스러움 등의 감정이 축적되면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이 느끼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광주, 1988). 한은주(2000)는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모가 여성의 역할을 전통적인 부모 역할로 인식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불안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

다. 결혼 후 가정에서 주부역할을 주로 수행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 많은 여성은 직업인으로서의 역할까지 포함한 다중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강희경 & 조복희, 1999).

셋째, 직장 요인으로는 직장-가정 갈등과 일만족도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다.

박인규(2004)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은 여성의 직무 불만족과 긴장 및 건강문제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Byron(2005)은 직장-가정 갈등과 직무스트레스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며,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 하였다. 또한 김윤서(2001)는 근무만족도가 낮은 취업모일수록 시간, 역할, 인간 관계, 경제 영역에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 3.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 관련 요인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직장일과 가정 내에서의 역할수행을 동시에 해야 하는 기혼 직장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만성적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조병희, 2015),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최은주 & 김춘경, 2017). Lazarus & Folkman(1984)은 이혼이나 출산과 같은 주요한 사건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누적될 때,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우울 등의 정신질환에 좀 더 취약하고, 같은 스트레스 사건에도 우울정도가 개인별로 변인이 존재한다.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의 종류 및 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혼 직장 여성의 다중역할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를 설명한 사회역할이론(Social-role theory)에 따르면(Anesheseli, Frerichs, & Clark, 1981),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별과 같은 생물학적 역할보다 자녀양육과 가사부담과 같은 가족 요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우울증상을 초래하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기혼 직장여성 중에서도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는 우울이나 불안의 증상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가족 양립 갈등을 가장 첨예하게 경험하고 있었다(홍승아, 2008). 이러한 현상에 대해 Cleary & Mechanoc(1983)은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취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될 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McLanahan & Adams(1989)은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이 아이들이 없는 여성보다 더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기혼 여성들은 일상에서 다발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을 더 강도 높게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있거나 어릴수록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우울 영향요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는 보편적으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 건강상태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정은, 2010; 최은주 외, 2017). 먼저 연령에 따라 고용상태나 결혼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울은 중년이 가장 낮고 연령이 젊은 층이나 노년층에게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ndler, Neale, Kessler, Heath, & Eaves, 1992). 국내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많은 기혼직장 여성이 가정생활이 보다 안정되고, 일만족도가 높아 정신건강 수준이 높다는 연구와(김선아 외, 2006; 강석임 & 전희정, 2013), 연령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김정선 & 신경림 2004; 송지은 & 한경혜, 2007)가 공존한다. 학력이나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우울과 관련이 있다. Pearlin(1989)은 이 현상을 사회적 자원이 적은 반면 만성적 스트레스원과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학력에 대

한 연구결과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김일호 외, 2009)와 반대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김순안 외, 2011)가 공존한다. 최은주 외(2017)는 기혼의 자녀가 있는 직장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우울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김혜신 외, 2003). 일반적인 여성의 우울증 유병율이 11%에서 19%인 반면, 저소득층 여성은 45%에서 60%까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된다(Press et al., 2006).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 부족, 실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Reading & Reynolds, 2001). 여성의 건강상태도 우울증의 위험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여성들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Press et al., 2006),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신경림, 2001; 김정선 외, 2004; 송지은 외, 2007, 안윤숙 외 2016). 또한 건강상태가 우울수준의 변화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종단연구를 통해, 건강상태가 단발성이 아닌 우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강석임 외, 2013).

셋째, 가정적 요인으로는 가사노동, 양육비용,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 및 성역할태도가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ith et al., 1980; 김혜원, 1997; 조혜경, 2001; Griffin et al., 2002; 김현동 & 김명희, 2011). 가사노동에 관련 하여서는 가사분담의 불평등의 연구결과 가정에서 통제력이 낮은 여성은 통제력이 높은 여성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두 배 이상 더 높았다고 제시하였다(Griffin et al., 2002). 가정에서의 통제력은 가사업무를 가족구성원에게 분배하여 적절히 할 수 있게 하거나, 가구 소득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남편의 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Keith et al., 1980), 남편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김혜신 외, 2003)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양육비의 경우 우리나라 대다수의 취업모는 양육비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나타내고 있으며, 양육비용 부담 과중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혜경, 2001).

김현동과 김명희(2011)는 기혼 직장 여성의 사회진출에 관한 인식을 전통적인 가족가치관과 현대적 가족가치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현대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진 여성은 가정에서 역할전환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져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진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적인 가족가치관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최석만 외, 2006). 이는 안윤숙 외(2016)의 연구에서도 제시한 바, 현대적 가족가치관을 지닐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조금숙과 조증열(2004)에 의하면 성역할태도도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성역할태도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태도를 의미하며, 평등하고 전통적인 정도를 의미한다. 과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전업주부’, ‘어머니’였기 때문에 가정 중심적이었으나, 맞벌이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퇴색되고 있다(Greenhaus & Powell, 2006).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에 비해 변화가 더딘 편으로 아직까지도 가정은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상황이다(신경아, 2014). 이러한 성역할태도는 취업모 및 전업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김혜원(1997)의 연구에 의하면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지닌 취업모일수록 심리적인 안녕감이 더 높고, 전업모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녔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성향이 있다면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지닌 취업모보다 신체적 피로, 우울, 역할 갈등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역할태도와 현재 역할이 일치해야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넷째, 기혼 여성의 직장유무에 따른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고용자체가 기혼여성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Gutek, et al., 1988; Lambert et al, 1990).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 성취감 등을 갖게 된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에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역할이 추가됨에 따라 긴장과 갈등이 커지므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이 무거

울 때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은 역할 갈등이나 역할 스트레스, 기타 스트레스로 인해 일을 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Barnett et al., 1992).

직장 요인과 우울 관련 요소에는 일만족도, 직장-가정갈등, 복리후생 등을 제시할 수 있다(박수미 & 한성현, 2004; Allen, & Sprctor, 2006; Cordiner & Scarborough, 2010). 일만족도는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한 태도 및 보상, 비용, 대인관계 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Cordiner & Scarborough, 2010). 박수미와 한성현(2004)은 기혼직장 여성의 직업 변수는 신체 건강 및 정신건강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특히 일 만족도가 높고, 업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정신 건강이 좋다고 하였다.

직장-가정 갈등과 우울을 연구한 연구들에서는 직장-가정 갈등은 우울과 같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고, 직장-가정 갈등을 많이 겪을수록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수준은 다른 집단보다 높다고 하였다(Chandola, 2004; Hammer, 2005; Greenhaus et al., Kalliath, 2012). Chandola(2004)의 연구는 핀란드, 영국 일본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는데, 일본의 직장 여성은 전통 문화가 강하고 서구사회와 다른 사회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어 건강이 나쁠 확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가족 친화적 정책이 일찍 시행된 핀란드 여성은 직장-가정 갈등의 정도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일본과 같은 동양권의 문화에 속하는 경우, 서구적인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 비해 직장-가정 갈등에 더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장-가정 갈등은 세대 간에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었다(이재경 & 이은하, 2003; 류임량, 2009; 박기남, 2009; 김경륜 조가영, 한윤영, 김주영, 2014). 이재경과 이은하(2003)는 34세 이하, 35-44세, 45세 이상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세대별로 직장-가정 갈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류임량(2009)은 34세 이하, 35-44세, 45세 이상으로 나뉜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전이(work to family spillover)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세대별로 노동시간 본인 가사노동시간, 일만족도, 미취학여부 등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특히 미취학자녀유무가 일-가정 전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 경제에 대한 기여를 해야 함과 동시에 직장 일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기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였다. 박기남(2009)은 직장여성의 일-가족 갈등 인식 중에서 시간갈등에 초점을 두어 연령계층별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 별로 영향을 미치는 시간관리의 요소와 갈등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Seto et al., 2004)에서는 직무불안정, 직장-가정 갈등이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리후생적 요소와 고용 만족도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족친화적인 정책, 교대근무나 탄력 근무같은 근무 스케줄, 임금수준 등이 여성의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복리후생 요소들이 많고, 일 관련한 요소들에 만족감이 높을수록 여성의 우울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제시하였다 (Press et al., 2006).

### 제 3 절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양육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이나 양립에 초점을 두어 이에 따른 우울이나 삶의 질과 같은 정신적 측면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를 크게 스트레스 관련 요인과 우울관련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또한 취업 및 미취업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분은 집단 간 비교연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1.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

양육 스트레스를 결과변수로 하여 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종호(2014)는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3차년도 자료(2012)를 활용하여 미취학 자녀를 1명 이상 둔 여성임금근로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개인, 부부, 자녀요인, 직무요인으로 나누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 내 역할인식, 남편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비용이 적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희정(2017)은 여성가족패널조사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영향 요인을 종단연구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취업모의 연령과 결혼 및 일만족도,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여부와 자녀양육 비용 변인이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값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율과 연관이 있는 변인으로는 연령,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 스트레스를 포함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다른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 및 우울과의 관계의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이 주관적 건강인식이 낮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녀양육 및 교육, 가사부담과 가족 내 역할 수행 등



으로 건강관리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오령, 2006). 건강 뿐 아니라 다양하게 주어지는 역할 부담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는 악순환적인 양상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Lundberg, 2006). 특히 특별한 스트레스보다 취업모가 경험하는 이른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좋지 않은 건강상태는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는 결과(Broadnax, 2016)를 통해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강조하고 있다.

## 2.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 관련 요인

이정은(2010)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 적합성과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12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장영역의 자원문항은 직무안정성, 소득적절성, 직무통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로 분류하였고, 가정영역의 자원문항은 가족의 정서적 지지, 양육통제, 가족의 도구적 지지로 나누었다. 연구결과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우울 수준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부모 가정이나 빈곤 계층,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만성적 스트레스원으로 인해 더 우울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오령 외(2006)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 사무직 근로자의 역할갈등 양상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첫째 자녀가 취학 전인 사무직 기혼 직장여성 12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직무-가정 갈등, 직무-양육 갈등, 가족의 지지도를 측정하고 종속변수로 우울증, 상태 불안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역할 갈등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생활보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긴장과 스트레스가 정신적 측면에서 어린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Grice et al.(2007)는 출산 후, 2년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직장여성의 건강을 다룬 연구에서 직장-가정 갈등(WFC)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직장-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에만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직장여성의 경우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양육을 비롯한 직장-가정 갈등 관련 스트레스적 요소들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Nancy(2009)는 어린자녀를 둔 직장여성 75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장-가정 갈등이 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자녀가 없거나 취학하나 자녀를 둔 직장여성에 비해 어린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 3. 기혼 여성 집단 간 비교 연구

취업여부가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건강행위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시행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백희정(2014)은 서울특별시 2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해 내소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90명을 대상으로 취업모와 전업모의 건강증진행위를 비교하였다. 건강증진행위는 건강책임감, 신체활동, 영양, 영적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로 측정하였고 건강상태는 신체건강상태와 정신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는 취업모, 전업모 모두 건강증진 행위 중 신체활동과 스트레스관리가 부족했고, 전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신체활동과 영적성장, 대인관계 측면의 건강증진행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나(2016)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 6차년도(2013)자료를 이용하여 취업모 612명과 비취업모 89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변인, 가족변인, 지역사회환경 변인으로 나누었고 개인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고, 가족변인은 자녀의 성별, 출생순위, 자녀의 매체이용정도, 가족기능성, 양육분담을 측정하였으며 지역사회환경 변인으로 사회적지지,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 사교육기관 충분성, 치안측면안전성, 안전사고측면의 안전성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비취업모가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 간에 응집성과 유연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복늬(2004)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가족기능과 정신건강 및 부부적응을 비교하기 위해 대구 시내 소재 유치원에 자녀를 등원시키는 어머니 중 3세에서 6세미만 아동을 자녀로 둔 79명의 취업모와 80명이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정신건강수준과 부부적응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가족기능과 우울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긍정적 정서와는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Kaur, Panwar, Thind, & Farooqi(2012)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 불안감 또한 높다고 보고하였다. 취업모가 삶을 도전적이고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비해 비취업모는 삶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지고 취업모에 비해 불안수준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두 그룹의 불안정도를 State-Trait Anxiety test를 시행하여 측정한 결과 취업모와 비취업모사이의 불안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 점수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높았다. 취업모의 경우 개인적 측면과 직장 관련 측면에서 모두 스트레스와 불안수준이 높았다.

Rout, Cooper, & Kerslake (1997)은 취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79명의 취업모와 22명의 전업모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연구 참여 대상자의 특성으로 연령, 고용상태, 결혼연령, 자녀 수, 자녀의 나이, 가사노동시간, 배우자의 가사노동 참여여부, 스트레스 요인이었으며 종속변수로는 정신건강을 불안, 우울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취업모와 전업모의 불안감 수준이 높았으며, 취업모와 전업모간의 불안수준은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수준은 전업모가 취업모보다 높았다. 배우자의 가사노동 만족여부에 따라 불안 및 우울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시간부족이었고 전업모는 사회생활 부족이었다.

#### 4.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직장여성의 스트레스는 다방면에서 발생하므로 양육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통합적인 스트레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스트레스는 개인, 가정, 직장에서의 여러 요인이 일상 생활 속에서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그 양상은 더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혼 직장여성의 스트레스는 다른 요인들의 결과 변인으로써도 제시되지만,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혼 직장여성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은 자녀가 어릴수록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스트레스 및 우울은 취업 여부에 따라 경험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는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총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적 요인으로서는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남편가사노동만족도, 양육비용,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를 확인하며, 직장 요인으로서는 일만족도, 직장-가정갈등, 복리후생을 포함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와 같은 태도변인이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매개나 조절의 중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검증도 확인하고자 한다.

## 제 3 장 연구방법

### 제 1 절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된 ‘여성가족패널’(KLoWF : Kore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2016년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패널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면제대상 승인을 받았다(IRB No. E1903/003-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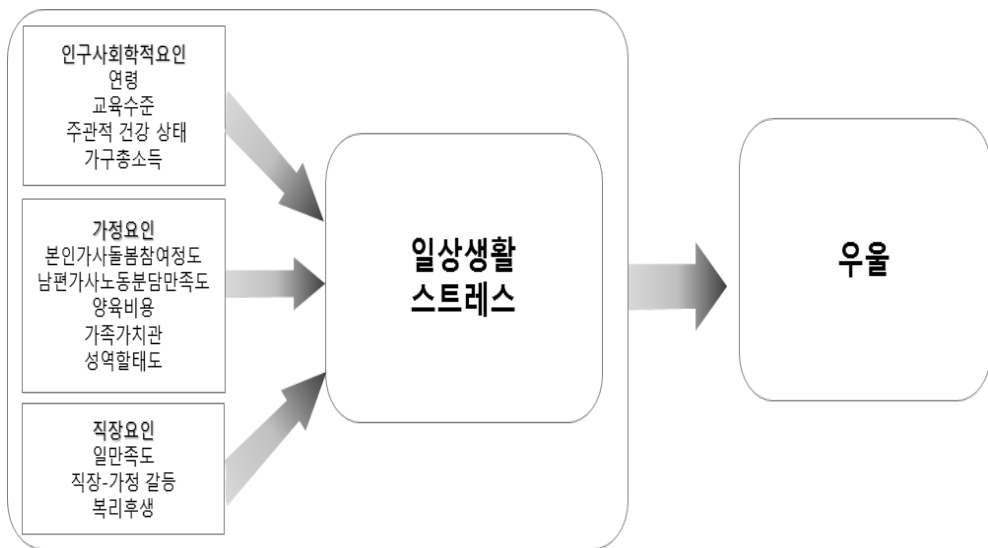
‘여성가족 패널자료’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에 관한 사항 등 여성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고도 중점적으로 다룬 패널로 2007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2016년 6차까지 조사 완료 및 공개가 된 상태이다. 여성의 삶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출산, 양육, 부양)에 따라 변화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경제활동, 가족, 일상생활의 영역 속에서 생활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패널자료는 이러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생활 뿐 아니라 가족, 일자리, 일-가정 양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한 자료이다.

연구 대상자는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일을 하고 있는 49세 이하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취업모’라 명명하기로 한다. 미취학 취업모가 아닌 비교군으로는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으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여성을 ‘미취학 전업모’라 명명한다. 또한 미취학 취업모와 같이 취업모이나, 초중고생 자녀만 있는 취업모로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생 취업모’라 명명한다. 이에 따라 미취학 취업모는 220명, 미취학 전업모는 303명, 초중고생 취업모는 1058명으로 총 1581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 제 2 절 연구모형과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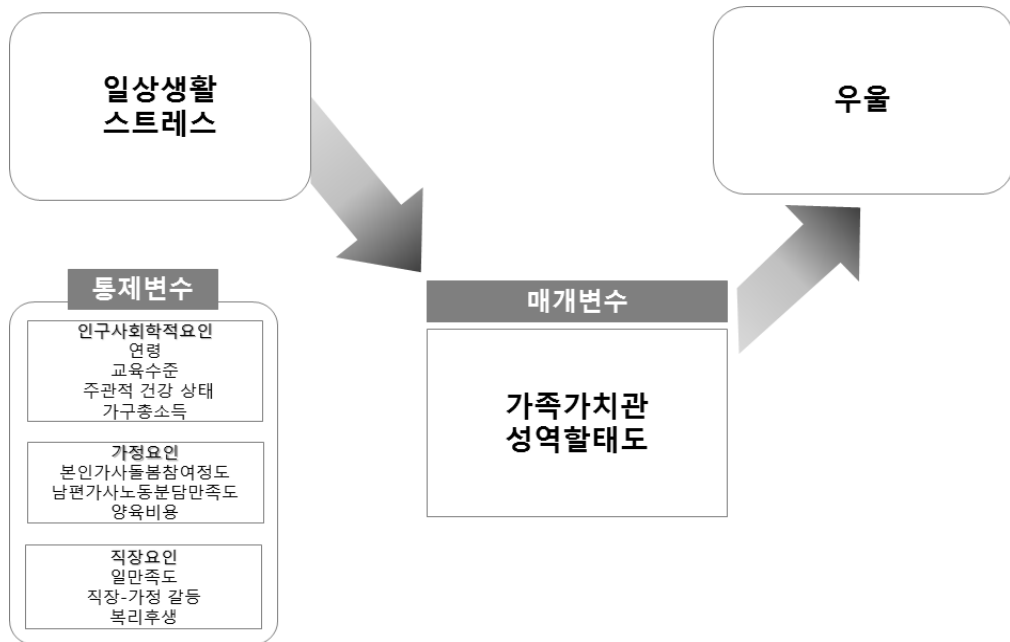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미취학 자녀를 1명 이상 둔 취업모로, 이하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취업모’라 칭하기로 한다. 미취학 취업모 집단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비교군으로 미취학자녀를 둔 전업모와(이하 ‘미취학 전업모’라 명명)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이하 ‘초중고생 취업모’라 명명)를 상정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변인들로는 선행연구에 따라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총소득,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남편가사노동만족도, 양육비용,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 일만족도, 직장-가정갈등, 복리후생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포함하여 각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이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Moss(2002)의 모형을 수정 보완하고 안윤숙 외(2016), 임종호(2013), 이희정(2017)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하여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주효과와의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관해 탐색적인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한 모형을 추가하여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모형 1]에서는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를 가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로서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그림 5]와 같다.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모형은 [연구모형 2]로 이는 [그림 6]과 같다.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모형은 [연구모형 3]으로 이는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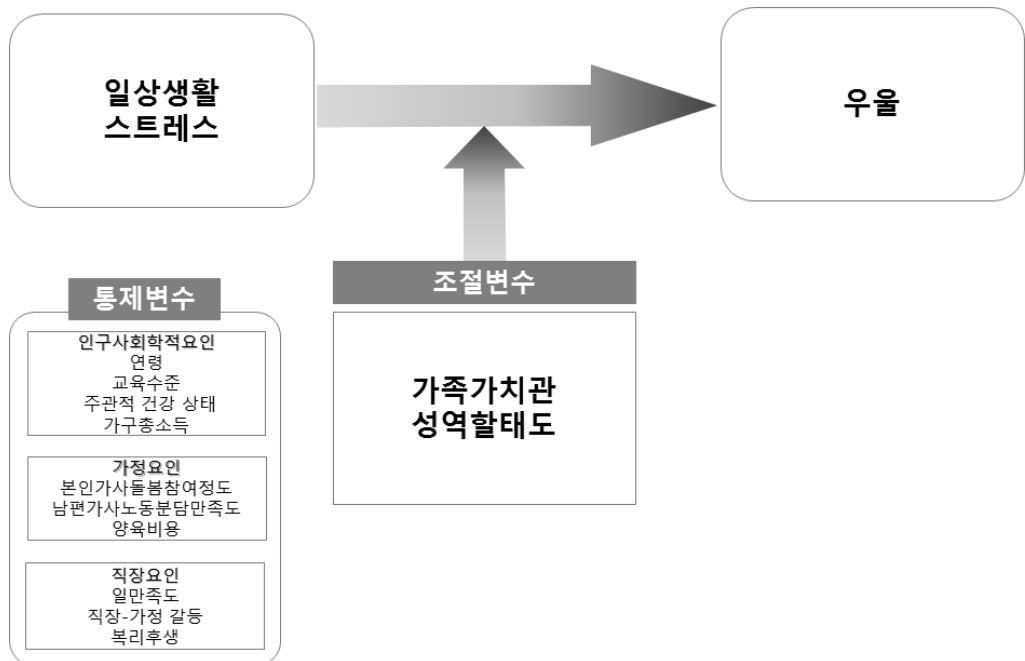


<b>비교 1</b>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 VS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
<b>비교 2</b>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 VS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

[그림 5] 연구모형 1



[그림 6] 연구모형 2 - 매개효과



[그림 7] 연구모형 3 - 조절효과



## 2. 연구변수

본 연구는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변수들을 연구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변수 [표 8]과 같다.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미취학 취업모 및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이다.

#### (1) 종속변수 1 : 일상생활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2011년 서울시 정신보건 인식조사의 내용을 여성가족패널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로써,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조금 그렇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고, 역문항 6번을 제외한 7개의 문항은 Recode 한 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 계수는 .75이었다.

[표 1]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문항내용-일상생활 스트레스	cronbach's $\alpha$
1.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75
2.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3.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4.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5.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	
6.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푼다*	

7.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8.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2) 종속변수 2 : 우울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여성가족패널에서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ES-D 10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대부분 그랬다\_일주일동안 5일이상, 2=종종 있었다\_일주일동안 3-4일간, 3=가끔 있었다\_일주일동안 1-2일간, 4=극히 드물다\_일주일동안 1일 이하)로 측정되었고, 역문항 5, 8번을 제외한 8개의 문항은 Recode 한 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 계수는 .81이었다.

[표 2] 우울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문항내용-우울	cronbach's α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81
2.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3. 상당히 우울했다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5. 비교적 잘 지냈다*	
6. 두려움을 느꼈다	
7.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8.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9.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 2) 매개 및 조절변수

### (1) 가족가치관

여성가족패널에서 가족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로 안윤숙 외(2016)의 연구에서 사용하였으며, 보수적인 가족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족가치관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척도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조금 그렇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고, 현대적인 가족가치관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현대적인 가족가치관에 해당되는 문항(6, 7, 8, 9, 10, 11, 12, 13, 14)을 Recode 한 후 합산하였다. 가족가치관은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대적인 가족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표 3] 가족가치관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문항내용-가족가치관	cronbach's $\alpha$
1.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90
2.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한다	
3.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4.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5.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6.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7.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8.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9.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10.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11.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	
12. 부부생활에서 성적만족은 중요하다	
13. 남편 이외의 이성친구가 필요하다	
14. 남편이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	

## (2) 성역할태도

여성가족패널에서 사용한 성역할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7문항의 척도를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평등한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식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조금 그렇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전체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 계수는 .85이었다.

[표 4] 성역할태도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문항내용-성역할태도	cronbach's α
1.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85
2.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3.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4.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5.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6.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7.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 3)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스트레스 및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으로 분류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각 요인별 변수들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연령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현재 기혼이고 미취학 자녀부터 초중고 자녀가 있는 연령대를 감안하여 20세 이상 49세 이하로 설정하였다.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에서는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사용한 바, ‘35세미만’은 1, ‘35-45세 미만’은 2, ‘45세이상’은 3으로 코딩한 후 사용하였다.

#### (2)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은 1, ‘고졸이하’는 0으로 더미변수로 코딩한 후 사용하였다.

#### (3) 주관적 건강상태

여성가족패널에서 사용한 Likert 단일문항을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신체의 건강상태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정도를 파악하는 질문이다. 원 변수는 Likert식 5점 척도(1=매우 좋다, 2=대체로 좋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조금 나쁜 편이다, 5=매우 나쁘다)로 측정되었고, Recode 한 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가구총소득

가구의 1년간 전체 총소득을 가구원수(루트)로 나눈 소득액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5)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임종호(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는 본인이 일주일간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총 시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숫자가 높을수록 본인의 가사돌봄노동시간이 많음을 의미한다.

#### (6) 남편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임종호(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는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정도를 5점 Likert 단일문항으로 확인한 질문이다. 원 변수는 Likert식 5점 척도(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별로 만족하지 않음, 5=전혀 만족하지 않음)로 측정되었고, Recode 한 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7) 양육비용

임종호(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자녀돌봄 비용 및 이용기관에 대한 이용비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비용이 발생하는 미취학 취업모와 미취학 전업모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변수이다. 이 비용은 총 합산비용으로 산정하며, 비용이 높을수록 양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큰 것을 의미한다.

#### (8) 일만족도

여성가족패널에서 사용한 일만족도와 관련된 의견을 묻는 7문항의 척도를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자신의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매우 만족, 2=약간 만족, 3=보통, 4=약간 불만족, 5=매우 불만족)로 측정되었고, 전체 문항을 Recode 한 후 합산하였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표 5] 일만족도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문항내용-직장-가정갈등	cronbach's α
1. 임금 또는 소득수준	.91
2. 고용의 안정성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4. 근로환경	
5. 근로시간	
6. 개인의 발전가능성	
7.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8. 복리후생	
9. 성과에 대한 인정	
10. 전반적인 일의 만족도	

(9) 직장-가정 갈등

여성가족패널에서 사용한 직장-가정 갈등 정도를 파악하는 11문항의 척도로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직장-가정 갈등 척도는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과 병행하면서 경험하는 갈등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약간 그렇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고, 역문항은 처리 후 합산하였다.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가정을 병행하는데 있어 경험하는 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 계수는 .79이었다.

[표 6] 직장-가정 갈등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문항내용-직장-가정갈등	cronbach's $\alpha$
1.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79
2.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진다*	
4. 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5.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6.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7.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8.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9.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10.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	
11. 식구 중 환자가 생겨서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10) 복리후생

여성가족패널에서 사용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에 관해 본인이 얼마나 헤

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로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퇴직금, 식사비용 보조나, 보육비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등의 금전적인 복리후생과 근로단축, 직장보육시설, 배우자육아휴직, 본인 육아휴직, 경조사 휴가 지원 등의 일 가정 양립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1,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0으로 하여 문항을 합산하였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복리후생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표 7] 복리후생 척도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문항내용-복리후생	cronbach's $\alpha$
1. 법적퇴직금	.80
2. 누진퇴직금	
3. 유급휴가(정규, 연월차)	
4. 생리휴가	
5. 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포함)	
6. 육아휴직	
7. 배우자육아휴직	
8. 병가	
9. 휴업보상	
10. 경조사휴가(특별휴가)	
11. 식사비용보조	
12. 출산장려금	
13. 보육비 지원	
14. 직장보육시설	
15. 학비보조	
16. 주택마련지원	
17. 경조사지원	
18. 자녀학자금 지원	
19. 탄력근로, 시차출퇴근제	
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변수에 대해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8] 본 연구의 변수

변수		측정	비고
종속변수1	일상생활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8문항의 합	점 수 높 을 수 록 일상생활 스트 레스 높음
종속변수 2	우울	우울 10문항의 합	점 수 높 을 수 록 우울 높음
독립 변수	인 구 사 회 학 적 요 인	연령 49세 이하만 선택 1 : 35세미만 2 : 35-45문항 미만 3 : 45세이상	
		교육수준 0 : 고졸이하 1 : 대졸이상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 5점 Likert 단일문 항 1 : 매우나쁨 2 : 나쁨 3 : 보통 4 : 건강 5 : 매우건강	점 수 높 을 수 록 주관적 건강상 태 좋음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을 가구원수(루 트)로 나눈 연간 소득액(원) 소득 하위 25% 소득 중위 75% 소득중위 25%	점 수 높 을 수 록 소득액이 큼
	가 정 적 요 인	본인가사 돌봄노동 시간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돌봄노동의 총시간(일주일)_분으로 환산	점 수 높 을 수 록 본인의 가사노 동시간이 김
		남편가사 노동만족 도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한 만 족도 단일문항 1 : 전혀만족하지않음 2 : 별로만족하지 않음 3 : 보통 4 : 대체로 만족 5 : 매우만족	점 수 높 을 수 록 남편의 가사노 동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음

변수			측정	비고
독립 변수	가 정 적 요 인	양육비용	돌봄,기관, 양육 월평균 총 비용 합산(만원)	점 수 높 을 수 록 양육비용이 많 이 지출됨
	직 장 요 인	고용형태	0 : 비정규직 1 : 정규직	
		일만족도	일만족도 10문항의 합	점 수 높 을 수 록 일만족도 큼
		직장-가정 갈등	직장과 가정 갈등 11문항의 합	점 수 높 을 수 록 직장-가정 갈등 정도가 높음
		복리후생	직장에서 제공하는 20가지의 복 리후생 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의 합	점수가 높을수 록 복리후생의 혜택을 많이 받 음
매개 변수 및 조절변수		가족 가치관	가족관련 가치관 14문항의 합	점 수 높 을 수 록 현대적 가족가 치관을 지님
		성역할 태도	성역할인식 7문항의 합	점 수 높 을 수 록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

### 제 3 절 분석방법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패널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수준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빈도(%)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IF)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하였다.

셋째,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과 주요변인간의 차이 및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 독립표본 t 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의 사후검정은 Scheffe를 사용하였다.

넷째,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이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Multiple linear regression) 실시하였다.

다섯째,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들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Multiple linear regression) 실시하였다.

여섯째,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이용한 경로분석을(Path Analysis)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Sobel 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일곱째,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

계에서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  $p<.01$ ,  $p<.001$ 에서 검증하였다.

## 제 4 장 연구결과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고찰하고 그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서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미취학자녀를 둔 전업모와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를 비교집단으로 상정하여 각 집단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상정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총소득) 가정적 요인(본인가사 돌봄노동시간, 남편가사분담만족도, 양육비용,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 직장 요인(일만족도, 직장-가정 갈등, 복리후생)이 포함되었다. 또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변인들 중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특성의 변인으로 우울에 영향요인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는 영향요인 검증과 더불어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까지 검증해보는 탐색적인 형태의 연구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제 1 절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

####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에 대하여 빈도 및 기술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35세-45세미만’이 928명(5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5세이상’이 429명(27.1%)로 많았으며, ‘35세미만’은 224명(14.2%)으로 가장 적었다. 연령의 평균은 40.54세( $SD \pm 5.69$ )였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상’이 954명(60.3%)으로 ‘고졸이하’ 627명(39.7%)에 비해 더 많았다. 가구소득은 연평균 4228.38원( $SD \pm 2048.96$ )인 가운데, ‘소득 중’에 해당되는 경우가

715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 하’가 338명(23.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 941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통’이 419명(26.5%)로 나타났고, ‘매우 나쁨’이 4명(0.3%)의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연구 대상자의 가정적 요인으로 연구 대상자의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는 주 평균 753.41분( $SD \pm 675.08$ )으로 주당 13시간 가량 가사돌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는 3.22점( $SD \pm .92$ )으로 보통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용은 미취학 취업모와 미취학 전업모만 응답한 가운데, 월 평균 23.20만원( $SD \pm 27.38$ )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가족가치관은 평균 37.29점( $SD \pm 4.53$ )이었고, 성역할태도는 평균 20.19점( $SD \pm 3.43$ )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직장 요인은 미취학 취업모 및 초중고생 취업모만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만족도 평균은 33.72점( $SD \pm 5.35$ )이었고, 직장-가정 갈등은 평균 12.34점( $SD \pm 2.19$ )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은 평균 4.53점( $SD \pm 4.26$ )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 여부를 살펴본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204명(61.1%)로 정규직의 130명(38.9%)에 비해 더 많이 차지하였다.

[표 9]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n=1581)

변수		구분	N	%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연령	35세미만	224	14.2
		35세-45세미만	928	58.7
		45세이상	429	27.1
		Mean±SD	40.54(5.69)	
	교육수준	고졸 이하	627	39.7
		(전문)대졸이상	954	60.3
	가구소득	소득 하	338	23.4
		소득 중	715	49.5
		소득 상	391	27.1
		Mean±SD	4228.38(2048.9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나쁨	4	.3
		조금나쁨	42	2.7
		보통	419	26.5
		대체로좋은편	941	59.5
		매우 좋음	175	11.1
가정 적요 인	본인가사 돌봄참여정도	Mean±SD	753.41	675.08
	남편가사 노동만족도	Mean±SD	3.22	.92
	양육비용	Mean±SD	23.20	27.38
	가족가치관	Mean±SD	37.29	4.53
	성역할태도	Mean±SD	20.19	3.43
	일만족도	Mean±SD	33.72	5.35
직장 요인	직장-가정 갈등	Mean±SD	12.34	2.19
	복리후생	Mean±SD	4.53	4.26
	고용형태	정규직	130	38.9
		비정규직	204	61.1

## 2.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하여 기술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10]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평균 16.46점( $SD \pm 2.82$ )이었고, 우울은 평균 2.87점( $SD \pm 3.64$ )이었다.

[표 10]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정도 (n=1581)

변수	M	SD
일상생활 스트레스	16.46	2.82
우울	2.87	3.64



## 제 2 절 연구 대상자의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 비교

### 1. 연구 대상자의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요인 비교

연구 대상자의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교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연령은 세 집단 모두 ‘35세-45세미만’이 각각 152명(69.1%), 196명(64.7%), 580명(54.8%)으로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 많은 연령층의 경우는 미취학 취업모와 미취학 전업모의 경우는 ‘35세미만’이 많이 차지하는 반면, 초중고생 취업모는 ‘45세이상’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연령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316.010$ ,  $p<.001$ ). 교육수준은 세 집단 모두 ‘(전문)대졸 이상’이 각각 170명(77.3%), 216명(71.3%), 568명(53.7%)로 더 많았으나, 초중고생 취업모는 다른 집단에 비해 ‘고졸이하’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61.106$ ,  $p<.001$ ). 가구소득은 세 집단 모두 ‘소득 중’이 각각 101명(49.5%), 133명(47.3%), 481명(50.2%)로 가장 많았으나, 미취학 취업모와 초중고생 취업모는 직장수입으로 미취학 전업모에 비해 소득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55.308$ ,  $p<.001$ ).

한편, 주관적 건강상태는 집단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세 집단 모두 건강상태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비교(n=1581)

변수	구분	미취학 취업모 (n=220)		미취학 전업모 (n=303)		초중고생 취업모 (n=1058)		x <sup>2</sup>
		N	%	N	%	N	%	
연령	35세미만	62	28.2	96	31.7	66	6.2	316.010 ***
	35세-45세미만	152	69.1	196	64.7	580	54.8	
	45세이상	6	2.7	11	3.6	412	38.9	
	mean±SD	36.72(4.29)		36.59(4.46)		42.47(5.26)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0	22.7	87	28.7	490	46.3	61.106 ***
	(전문)대졸이상	170	77.3	216	71.3	568	53.7	
가구 소득	소득 하	40	19.6	108	38.4	190	19.8	55.308 ***
	소득 중	101	49.5	133	47.3	481	50.2	
	소득 상	63	30.9	40	14.2	288	30.0	
	mean±SD	4588.97 (2471.50)		3561.82 (1717.09)		4344.87 (2001.51)		
주관 적 건강 상태	매우나쁨	0	0.0	2	0.7	2	0.2	9.398
	조금나쁨	4	1.8	10	3.3	28	2.6	
	보통	68	30.9	74	24.4	277	26.2	
	대체로좋은편	130	59.1	176	58.1	635	60.0	
	매우 좋음	18	8.2	41	13.5	116	11.0	

\*p<.05 \*\* p<.01 \*\*\*p<.001

## 2. 연구 대상자의 집단 간 가정적 요인 비교

연구 대상자의 집단 간 가정적 요인을 비교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는 미취학 전업모가 주 평균 1380.15분( $SD \pm 927.23$ )으로 가장 많았고, 초중고생 취업모가 502.26분( $SD \pm 332.99$ )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318.262, p<.001$ ). 남편의 가사노동만족도는 미취학 취업모가 3.36점( $SD \pm .92$ )으로 가장 높았고, 초중고생 취업모가 3.18점( $SD \pm .927$ )으로 가장 낮았고,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3.558, p<.05$ ). 양육비용은 미취학 취업모와 미취학 전업모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미취학 취업모의 양육비용이 27.53만원( $SD \pm 34.27$ )으로 미취학 전업모의 19.74만원( $SD \pm 19.68$ )에 비해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786, p<.01$ ). 가족가치관은 미취학 취업모가 평균 37.86점( $SD \pm 3.80$ )으로 가장 현대적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학 전업모가 36.87점( $SD \pm 4.77$ )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3.056, p<.05$ ). 성역할태도는 미취학 취업모가 20.27점( $SD \pm 3.38$ )으로 가장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학 전업모가 19.67점( $SD \pm 3.33$ )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919, p<.01$ ).

[표 12] 연구 대상자의 가정적 요인 비교(n=1581)

변수	미취학 취업모(a) (n=220)		미취학 전업모(b) (n=303)		초·중·고생 취업모(c) (n=1058)		F
	M	SD	M	SD	M	SD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1077.53	768.46	1380.15	927.23	502.26	332.99	318.262*** b>a>c
남편가사 노동만족도	3.36	.92	3.26	.88	3.18	.927	3.558* a>c
양육비용	27.53	34.27	19.74	19.68	-		2.786**
가족가치관	37.86	3.80	36.87	4.77	37.30	4.59	3.056* a>b
성역할태도	20.55	3.70	19.67	3.33	20.27	3.38	4.919** a>b,c
* $p<.05$ ** $p<.01$ *** $p<.001$							

### 3. 연구 대상자의 집단 간 직장 요인 비교

연구 대상자의 집단 간 직장 요인은 미취학 취업모와 초중고생 취업모의 두 집단을 분석하였고, 비교결과는 [표 13]과 같다.

일만족도는 미취학 전업모가 35.37점(SD±5.52), 초중고생 취업모가 33.38점(SD±5.26)으로 미취학 취업모의 일만족도가 더 높았고,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5.041$ ,  $p<.001$ ). 복리후생은 미취학 전업모가 7.21점(SD±4.44), 초중고생 취업모가 4.03점(SD±4.08)으로 미취학 취업모의 복리후생 정도가 훨씬 더 높았고,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7.218$ ,  $p<.001$ ).

한편, 직장-가정갈등과 고용형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직장-가정갈등은 미취학 취업모나 초중고생 취업모의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연구 대상자의 직장 요인 비교(n=1581)

변수	미취학 취업모 (n=220)		초중고생 취업모 (n=1058)		t/ $\chi^2$
	M/n	SD/%	M/n	SD/%	
일만족도	35.37	5.52	33.38	5.26	5.041***
직장-가정 갈등	12.53	2.03	12.30	2.21	1.401
복리후생	7.21	4.44	4.03	4.08	7.218***

\* $p<.05$  \*\*  $p<.01$  \*\*\* $p<.001$

#### 4. 연구 대상자의 집단 간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비교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을 각 집단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미취학 취업모가 16.64점( $SD \pm 2.85$ )으로 가장 높았고, 미취학 전업모가 16.04점( $SD \pm 2.83$ )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4.343, p < .05$ ). 한편, 우울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우울은 세 집단 모두 비슷한 정도의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14]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수준 비교  
(n=1581)

변수	미취학 취업모 (a)(n=220)		미취학 전업모 (b)(n=303)		초중고생 취업모 (c)(n=1058)		F
	M	SD	M	SD	M	SD	
일상생활 스트레스	16.64	2.85	16.04	2.83	16.55	2.80	4.343* c>b
우울	2.55	3.39	3.07	3.70	2.87	3.68	1.286

\* $p < .05$  \*\*  $p < .01$  \*\*\* $p < .001$

### 제 3 절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 요인

#### 1.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단변량)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각 집단별로 관련 요인들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5]와 같다.

먼저 미취학 취업모의 분석결과, 고졸이하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17.52점( $SD \pm 2.67$ ), 대졸이상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16.38점( $SD \pm 2.86$ )으로 학력이 더 낮은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2.511, p < .05$ ). 가구총소득은 소득 하 집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17.43점( $SD \pm 2.85$ )으로 가장 높았고, 소득 상 집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16.00점( $SD \pm 2.92$ )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3.154, p < .05$ ).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남편가사노동만족도, 가족가치관, 일만족도, 복리후생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가정갈등과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가사노동만족도가 높고( $r = -.237, p < .01$ ), 현대적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r = -.204, p < .01$ ),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r = -.375, p < .001$ ), 직장의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으면( $r = -.212, p < .01$ )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직장-가정갈등이 높으면( $r = .360, p < .001$ ) 일상생활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가사돌봄참여 정도, 양육비용, 성역할태도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음으로 미취학 전업모의 분석결과,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남편가사노동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r = -.215, p < .001$ )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총소득,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양육비용, 성역할태도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초중고생 취업모의 분석결과, 고졸이하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16.79점( $SD \pm 2.86$ ), 대졸이상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16.34점( $SD \pm 2.74$ )으로 학력이 더 낮은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2.577, p < .05$ ). 가구총소득은 소득 하가 17.23점( $SD \pm 2.56$ )으로 가장 높았고, 소득 상이 15.86점( $SD \pm 2.86$ )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14.608, p < .001$ ).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남편가사노동만족도,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 일만족, 복리후생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돌봄가사노동, 직장-가정갈등과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가사노동만족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r = -.123, p < .001$ ), 현대적 가족가치관을 갖고( $r = -.143, p < .001$ ),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갖고( $r = -.157, p < .001$ ),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r = -.173, p < .001$ ), 직장의 복리후생이 잘되어 있으면( $r = -.091, p < .05$ )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15]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단변량) (n=1581)

	변수	미취학 취업모 (n=220)		r/t/F	미취학 전업모 (n=303)		r/t/F	초중고생 취업모 (n=1058)		r/t/F
		M	SD		M	SD		M	SD	
인 구 사 회 학 적	연령	35세미만	16.50	2.64	.212	16.26	2.80	17.15	2.87	1.829
		35세-45세미만	16.72	2.98		15.88	2.84		16.55	2.73
		45세이상	16.17	1.33		16.50	2.51		16.44	2.88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7.52	2.67	-2.511*	16.49	2.80	16.79	2.86	-2.577*
		(전문)대졸이상	16.38	2.86		15.84	2.81		16.34	2.74
	주관적 건강 상태	매우나쁨	19.40	2.29	1.898	15.50	.71	15.00	4.24	2.046
		조금나쁨	19.50	1.29		16.20	3.22		16.93	2.88
		보통	16.94	2.72		16.64	2.84		16.85	2.81
		대체로좋은편	16.42	2.81		15.95	2.74		16.49	2.72
	가구 총소득	매우 좋음	16.44	3.55	3.154*	15.18	2.91	16.06	3.12	14.608***
		소득 하	17.43	2.85		16.38	2.87		17.23	2.56
		소득 중	16.71	2.79		15.80	2.74		16.63	2.81
		소득 상	16.00	2.92		15.18	2.90		15.86	2.86
가 정 적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1077.53	768.46	-.085	1384.57	925.63	.087	502.26	332.99	.077*
	남편가사노동만족도	3.36	.92	-.237**	3.25	.89	-.215***	3.18	.92	-.123***
	양육비용	27.53	34.27	-.035	19.74	19.68	-.114	-	-	-
	가족가치관	37.86	3.80	-.204**	36.87	4.78	-.099	37.30	4.59	-.143***
	성역할태도	20.55	3.70	-.101	19.67	3.33	.066	20.27	3.38	-.157***
직 장	일만족도	35.37	5.52	-.375***	-	-	-	33.38	5.26	-.173***
	직장-가정 갈등	12.53	2.03	.360***	-	-	-	12.30	2.21	.256***
	복리후생	7.21	4.44	-.212*	-	-	-	4.03	4.07	-.091*

\* $p<.05$  \*\*  $p<.01$  \*\*\* $p<.001$

## 2.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요인과의 관계(다변량)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들 즉,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총소득,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남편가사노동만족도, 양육비용,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 일만족도, 직장-가정갈등, 복리후생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명목변수인 교육수준은 더미화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세 집단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VIF와 Tolerance를 살펴본 결과, VIF가 3을 넘지 않았고, Tolerance가 모두 1에 근접하는 값을 가짐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16]과 같다.

먼저 미취학 취업모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에 해당되는 12개의 독립변수들이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40.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총소득, 가족가치관, 일만족도, 직장-가정갈등으로 분석되었고, 직장-가정갈등, 가구총소득, 일만족도, 가족가치관의 순으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다. 분석결과, 직장-가정갈등이 높을수록( $\beta=.310, p<.001$ )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beta=-.225, p<.05$ ),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beta=-.224, p<.05$ ), 현대적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beta=-.207, p<.05$ )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남편가사노동만족도, 양육비용, 성역할태도, 복리후생은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기의 분석을 통한 최종 결과, 미취학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는 가구소득과 가족가치관, 일만족도, 직장-가정갈등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미취학 전업모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요인에 해당되는 9개의 독립변수들이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13.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남편가사노동만족도로 분석되었고, 남편가사노동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의 순으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다.

분석결과, 남편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beta = -.247, p < .001$ ),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beta = -.152, p < .05$ ), 학력이 높을수록( $\beta = -.137, p < .05$ )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령, 가구총소득,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양육비용,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기의 분석을 통한 최종 결과, 미취학 전업모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는 남편가사노동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생 취업모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에 해당되는 11개의 독립변수들이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16.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취업모의 경우는 자녀의 연령상 양육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독립변수는 11개로 상정하였다.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총소득,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 직장-가정갈등으로 분석되었고, 성역할태도, 직장-가정갈등, 가구총소득, 가족가치관의 순으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다.

분석결과, 직장-가정갈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beta = .191, p < .001$ )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beta = -.144, p < .01$ ), 현대적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beta = -.138, p < .01$ ),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beta = -.245, p < .001$ )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남편가사노동만족도, 일만족도, 복리후생은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기의 분석을 통한 최종 결과, 초중고생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는 성역할태도, 직장-가정갈등, 가구총소득, 가족가치관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요인과의 관계(다변량)  
(n=1581)

변수	구분	미취학 취업모(n=220)				미취학 전업모(n=303)				초중고생 취업모(n=1058)			
		b	SE	$\beta$	t	b	SE	$\beta$	t	b	SE	$\beta$	t
인 구 사 회 학 적	연령	.054	.075	.069	.711	-.033	.046	-.047	-.725	-.016	.040	-.018	-.401
	교육 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1.296	.839	-.142	-1.544	-.824	.387	-.137	-2.132*	-.078	.295	-.013	-.266
	주관적 건강상태	-.487	.418	-.108	-1.166	-.582	.244	-.152	-2.384*	-.066	.209	-.015	-.316
가 정 적	가구총소득	.000	.000	-.225	-223*	-736E-005	.000	-.045	-.687	.000	.000	-.144	-2.719**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0	.000	-.109	-1.120	8.467E-005	.000	.028	.427	.001	.000	.084	1.847
	남편가사 노동만족도	.454	.335	.132	1.352	-.781	.200	-.247	-3.914***	-.276	.151	-.086	-1.829
	양육비용	.000	.007	.001	.016	-.013	.009	-.089	-1.403	-	-	-	-
	가족가치관	-.161	.077	-.207	-2.082*	-.051	.037	-.087	-1.391	-.092	.032	-.138	-2.921**
직 장	성역할태도	-.034	.071	-.046	-.473	.053	.059	.058	.906	-.203	.039	-.245	-5.143***
	일만족도	-.119	.057	-.224	-2.079*	-	-	-	-	-.008	.029	-.015	-.283
	직장-가정 갈등	.411	.128	.310	3.201**	-	-	-	-	.265	.066	.191	4.038***
	복리후생	.010	.063	.016	.151	-	-	-	-	.060	.039	.081	1.523
	F	4.384***				3.870*				7.681***			
	R <sup>2</sup> (adj.R2)	.403(.311)				.133(.099)				.169(.147)			

\*p <.05 \*\*p <.01 \*\*\*p <.001

## 제 4 절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 1.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단변량)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각 집단별로 관련 요인들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7]과 같다.

먼저 미취학 취업모의 분석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나쁜 건강상태 집단의 우울이 7.60점( $SD \pm 3.21$ )으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좋은편인 건강상태를 가진 집단의 우울이 2.32점( $SD \pm 3.44$ )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3.960, p<.01$ ). 우울은 일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가정갈등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r=-.158, p<.05$ ), 우울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직장-가정갈등이 높고( $r=.246, p<.01$ ),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으면( $r=.336, p<.001$ ) 우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 교육수준, 가구총소득, 본인돌봄가사노동, 남편가사노동만족도, 양육비용,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 복리후생은 우울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미취학 전업모의 분석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나쁜 건강상태 집단의 우울이 9.50점( $SD \pm 3.54$ )으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좋은편인 건강상태를 가진 집단의 우울이 2.53점( $SD \pm 3.51$ )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405, p<.01$ ). 우울은 가족가치관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가치관이 높으면( $r=-.156, p<.01$ ), 우울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으면( $r=.311, p<.01$ ) 우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 교육수준, 가구총소득, 본인돌봄가사노동, 남편가사노동만족도, 양육비용, 성역할태도는 우울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초중고생 취업모의 분석결과, 고졸이하의 우울은 3.29점( $SD\pm 3.97$ ), 대졸이상의 우울은 2.51점( $SD\pm 3.37$ )으로 학력이 더 낮은 초중고생 취업모의 우울이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397, p<.01$ ).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나쁜 건강상태 집단의 우울이 9.50점( $SD\pm 7.78$ )으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좋은편인 건강상태를 가진 집단의 우울이 2.44점( $SD\pm 3.30$ )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8.278, p<.001$ ). 가구총소득에서는 소득 하위 경우 우울이 4.46점( $SD\pm 4.34$ )으로 가장 높았고, 소득 상이 1.97점( $SD\pm 2.92$ )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7.721, p<.001$ ).

우울은 남편가사노동만족도, 가족가치관, 일만족, 복리후생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돌봄가사노동시간, 직장-가정갈등, 일상생활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r=-.129, p<.001$ ), 가족가치관이 높고( $r=-.111, p<.001$ ),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r=-.162, p<.001$ ), 복리후생이 잘되어 있으면( $r=-.115, p<.01$ ) 우울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인돌봄가사노동이 증가하고( $r=.076, p<.05$ ), 직장-가정갈등이 높고( $r=.176, p<.001$ ),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으면( $r=.316, p<.001$ ) 우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 성역할태도는 우울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7]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단변량)  
(n=1581)

	변수	미취학 취업모 (n=220)		r/t/F	미취학 전업모 (n=303)		r/t/F	초중고생 취업모 (n=1058)		r/t/F
		M	SD		M	SD		M	SD	
인 구 사 회 학 적	연령	35세미만	2.10 3.01	1.075	3.03 3.94	.082	3.20 4.27	.276		
		35세-45세미만	2.77 3.53		3.08 3.60		2.84 3.73			
		45세이상	1.67 3.61		2.60 3.31		2.86 3.5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92 4.05	-.877	2.88 3.85	.492	3.29 3.97	-3.397**		
		(전문)대졸이상	2.44 3.18		3.12 3.64		2.51 3.37			
	주관적 건강 상태	매우나쁨	7.60 3.21	3.960**	9.50 3.54	4.405**	9.50 7.78	8.278***	보통, 조 금 나쁜 > 보통, 조금 나쁜 > 대체로 좋은편	
		조금나쁨	7.50 4.51		4.90 3.81		4.89 5.51			
		보통	2.40 2.40		3.97 4.00		3.48 3.91			
		대체로좋은편	2.32 3.44		2.53 3.51		2.44 3.30			
		매우좋은편	3.72 4.94		2.85 3.21		3.20 4.00			
	가구 총소득	소득 하	3.43 3.65	1.432	3.53 3.94	2.357	4.46 4.34	27.721**	* 하>중>상	
		소득 중	2.44 3.43		2.51 3.29		2.79 3.64			
		소득 상	2.35 3.33		3.15 3.95		1.97 2.92			
가 정 적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1077.53	768.46	-.018	1384.57	925.63	-.017	502.26	332.99	.076*
	남편가사노동만족도	3.36	.92	-.090	3.25	.89	-.026	3.18	.92	-.129***
	양육비용	27.53	34.27	-.093	19.74	19.68	-.042	-	-	-
	가족가치관	37.86	3.80	-.085	36.87	4.78	-.156**	37.30	4.59	-.111***
	성역할태도	20.55	3.70	.002	19.67	3.33	-.087	20.27	3.38	-.045
직 장	일만족도	35.37	5.52	-.158*	-	-	-	33.38	5.26	-.162***
	직장-가정 갈등	12.53	2.03	.246***	-	-	-	12.30	2.21	.176***
	복리후생	7.21	4.44	-.053	-	-	-	4.03	4.07	-.115*
	일상생활 스트레스	16.64	2.85	.336***	16.02	2.82	.311**	16.55	2.80	.316***

\* $p<.05$  \*\*  $p<.01$  \*\*\* $p<.001$



## 2.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다변량)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다른 영향요인들을 통제하면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들 즉,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총소득,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남편가사노동만족도, 양육비용,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 일만족도, 직장-가정갈등, 복리후생,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각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명목변수인 교육수준은 더미화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세 집단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VIF와 Tolerance를 살펴본 결과, VIF가 3을 넘지 않았고, Tolerance가 모두 1에 근접하는 값을 가짐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18]과 같다.

먼저 미취학 취업모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13개의 독립변수들이 우울을 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가치관, 일상생활 스트레스로 분석되었고, 일상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의 순으로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다. 분석결과,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beta=.337, p<.01$ )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대적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beta=-.233, p<.05$ )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총소득,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남편가사노동만족도, 양육비용, 성역할태도, 일만족도, 직장-가정갈등, 복리후생은 우울의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기의 분석을 통한 최종 결과, 미취학 취업모가 경험하는 우울에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미취학 전업모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요인에 해당되는 10개의 독립변수들이 우울을 17.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전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가치관, 일상생활 스트레스였고, 일상생활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가치관의 순으로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다.

분석결과,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beta=.305, p<.001$ )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beta=-.214, p<.01$ ), 현대적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beta=-.136, p<.05$ )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령, 교육수준, 가구총소득,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남편가사노동만족도, 양육비용, 성역할태도는 우울의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기의 분석을 통한 최종 결과, 미취학 전업모가 경험하는 우울에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가치관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 한 후에도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생 취업모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가정적, 직장 요인에 해당되는 12개의 독립변수들이 우울을 15.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취업모의 경우는 자녀의 연령상 양육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독립변수는 12개로 상정하였다. 초중고생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 남편가사노동만족도, 직장-가정갈등, 일상생활 스트레스로 분석되었고, 일상생활 스트레스, 남편가사노동만족도, 교육수준, 직장-가정갈등의 순으로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다.

분석결과,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고( $\beta=.196, p<.001$ ), 직장-가정갈등이 높을수록( $\beta=.102, p<.05$ )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편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beta=-.118, p<.05$ ), 학력이 더 높을수록( $\beta=-.104, p<.05$ )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총소득,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 일만족도, 복리후생은 우울의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기의 분석을 통한 최종 결과, 초중고생 취업모가 경험하는 우울에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남편가사노동만족도, 교육수준, 직장-가정갈등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8]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과의 관계  
(다변량) (n=1581)

변수	구분	미취학 취업모(n=220)				미취학 전업모(n=303)				초중고 취업모(n=1058)			
		b	SE	$\beta$	t	b	SE	$\beta$	t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08	.102	-.008	-.076	-.034	.056	-.038	-.598	-.026	.047	-.026	-.563
	교육수준	1.896	1.148	.166	1.652	.393	.478	.052	.823	-.731	.347	-.104	-2.107*
	고졸이하 대졸이상												
	주관적 건강상태	.342	.568	.061	.603	-1.021	.302	-.214	-3.375**	-.177	.246	-.034	-.721
가정적	가구총소득	.000	.000	-.086	-.774	.000	.000	.080	1.256	-.637E-05	.000	-.037	-.676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1	.000	-.192	-1.816	-.937E-05	.000	-.025	-.386	.001	.000	.076	1.643
	남편가사노동 만족도	-.117	.457	-.027	-.256	.260	.253	.066	1.029	-.444	.178	-.118	-2.488*
	양육비용	-.011	.009	-.116	-1.165	.001	.011	.004	.067				
	가족가치관	-.227	.107	-.233	-2.123*	-.100	.045	-.136	-2.203*	-.056	.037	-.072	-1.485
직장	성역할태도	.173	.096	.189	1.805	-.103	.072	-.089	-1.429	-.068	.048	-.071	-1.431
	일만족도	.041	.080	.061	.511					-.017	.034	-.027	-.510
	직장-가정 갈등	.274	.184	.165	1.487					.165	.079	.102	2.100*
독립	복리후생	-.004	.085	-.005	-.045					-.003	.046	-.004	-.066
	일상생활 스트레스	.423	.153	.337	2.771**	.382	.081	.305	4.695***	.228	.058	.196	3.942***
F		2.788**				4.778***				6.256***			
R <sup>2</sup> (adj.R2)		.320(.205)				.175(.138)				.154(.129)			

\*p <.05 \*\*p <.01 \*\*\*p <.001

## 제 5 절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 1.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 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 과(다변량)

1)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  
관의 매개효과

(1)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9]과 같다. 모형의 F값이 2.183이고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을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23.3%였다. 또한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가족가치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의 영향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beta = -.238, p < .001$ ).

[표 19]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n=220)

변수		구분	미취학 취업모(n=220)			
			<i>b</i>	SE	<i>β</i>	<i>t</i>
인구사회학적	연령		.178	.107	.178	1.661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206	1.227	-.018	-.168
	주관적 건강상태		.167	.612	.029	.273
	가구총소득		.000	.000	-.162	-1.402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0	.001	-.099	-.839
	남편가사돌봄노 동만족도		3.167E -5	.000	.036	.300
	양육비용		-.016	.010	-.167	-1.619
직장	일만족도		-.009	.200	-.005	-.043
	직장-가정 갈등		.181	.081	.263	2.221*
	복리후생		-.089	.090	-.112	-.989
독립	일상생활 스트레스		-.328	.123	-.238	-2.003*
F			2.183*			
R <sup>2</sup> (adj.R2)			.233(.126)			

\*p <.05 \*\*p <.01 \*\*\*p <.001

2)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 결과가 [표 20]에 제시되었다.

Model 1과 예서는 Model 2 모두 F값이 각각 F=2.257, F=2.679 p값(p<.05, p<.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Model 1은 통제변수와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미취학 취업모의 우울

을 23.9%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단계 모델은 1단계에 비해 5.3%의 설명력이 증가한 29.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의 변화 폭을 살펴보았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회귀계수는 가족가치관을 투입하였을 때 .391에서 .329로 낮아졌다. 이는 미취학 취업모의 가족가치관이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obel 검증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검증이 되었다. 따라서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낮아지면 가족가치관이 높아지고, 가족가치관이 높아지면 우울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0]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 (n=220)

변수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eta$	t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25	.104	-.026	-.245	.020	.103	.021	.195
	교육수준	1.825	1.191	.160	1.532	1.772	1.156	.155	1.532
	주관적 건강상태	.311	.594	.055	.524	.354	.577	.063	.614
	가구총소득	-.8683E-5	.000	-.071	-.620	.000	.000	-.114	-1.006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0	.001	-.089	-.763	.000	.000	-.115	-1.009
	남편가사돌봄노동만족도	-.3930E-5	.000	-.046	-.384	-.3121E-5	.000	-.037	-.314
	양육비용	-.006	.010	-.068	-.668	-.010	.009	-.112	-1.109
직장	일만족도	.234	.194	.141	1.205	.232	.189	.139	1.229
	직장-가정 갈등	-.009	.079	-.014	-.119	.037	.079	.055	.466
	복리후생	.047	.087	.061	.538	.024	.085	.031	.284
독립	일상생활 스트레스	.491	.156	.391	3.139*	.413	.155	.329	2.657*
매개	가족가치관					-.202	.051	-.262	-2.210*
F		2.257*				2.679**			
R <sup>2</sup> (adj.R2)		.239(.133)				.292(.183)			

\*p <.05 \*\*p <.01 \*\*\*p <.001

2)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

(1)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1]와 같다. 모형의 F값이 2.243이고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을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8.9%였다. 또한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가족가치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의 영향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beta = -.226, p < .05$ ).

[표 21]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n=303)

변수		구분	미취학 전업모(n=303)			
			<i>b</i>	SE	$\beta$	<i>t</i>
인구사회학적	연령		.074	.106	.057	.696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959	.849	-.093	-1.129
	주관적 건강상태		-.128	.591	-.018	-.217
	가구총소득		-.068	.445	-.010	-.153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0	.000	.049	.713
	남편가사돌봄노 동만족도		.000	.000	.091	1.206
	양육비용		.000	.000	.064	.780
독립	일상생활 스트레스		-.333	.151	-.226	-1.928*
F			2.243*			
R <sup>2</sup> (adj.R2)			.089(.071)			

\*p < .05 \*\*p < .01 \*\*\*p < .001



(2)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 결과가 [표 22]에 제시되었다.

Model 1과 Model 2 모두 F값이 각각  $F=6.284$ ,  $F=6.111$   $p$ 값 ( $p<.001$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Model 1은 통제변수와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미취학 취업모의 우울을 18.1%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단계 모델은 1단계에 비해 1.4%의 설명력이 증가한 19.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의 변화 폭을 살펴보았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회귀계수는 가족가치관을 투입하였을 때 .340에서 .328로 낮아졌다. 이는 미취학 전업모의 가족가치관이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obel 검증한 결과  $p<.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검증이 되었다. 따라서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낮아지면 가족가치관이 높아지고, 가족가치관이 높아지면 우울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2]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 (n=303)

변수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eta$	t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30	.056	-.034	-.533	-.030	.056	-.034	-.537
	교육수준	.343	.474	.046	.725	.345	.470	.046	.733
	주관적 건강상태	-.827	.305	-.173	-2.715**	-.843	.303	-.176	-2.786**
	가구총소득	.000	.000	.054	.863	.000	.000	.059	.952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1	.000	-.142	-2.041*	.000	.000	-.129	-1.863*
	남편가사돌봄노동만족도	.000	.000	.218	3.066**	.000	.000	.211	2.987**
	양육비용	.005	.011	.031	.496	.005	.011	.030	.489
독립	일상생활 스트레스	.426	.080	.340	5.329***	.411	.080	.328	5.157***
매개	가족가치관					-.189	.044	-.121	-2.012*
F		6.284***				6.111***			
R <sup>2</sup> (adj.R2)		.181(.152)				.195(.163)			

\*p <.05 \*\*p <.01 \*\*\*p <.001

### 3)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

#### (1)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모형의 F값이 3.078이고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을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6.9%였다. 또한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가족가치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의 영향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beta = -.096$ ,  $p < .05$ ).

[표 23]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n=1058)

변수	구분	초·중고생 취업모(n=1058)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133	.063	.102	2.107*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019	.470	.002	.040
	주관적 건강상태	.652	.330	.096	1.978*
	가구총소득	.000	.000	-.088	-1.568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1	.001	-.040	-.774
	남편가사돌봄노 동만족도	.001	.000	.114	2.091*
직장	일만족도	-.055	.107	-.026	-.510
	직장-가정 갈등	.120	.045	.146	2.654**
	복리후생	-.088	.062	-.080	-1.437
독립	일상생활 스트레스	-.144	.075	-.096	-1.926*
F		3.078**			
R <sup>2</sup> (adj.R2)		.069(.047)			

\*p < .05 \*\*p < .01 \*\*\*p < .001

(2)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변수가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4]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 (n=1058)

변수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eta$	t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16	.047	-.016	-.340	-.009	.047	-.009	-.183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612	.350	-.087	-1.747	-.611	.350	-.087	-1.747
	주관적 건강상태		-.269	.246	-.051	-1.091	-.232	.247	-.044	-.941
	가구총소득		-.804E-5	.000	-.046	-.844	-9.156E-5	.000	-.052	-.959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0	.001	.039	.779	.000	.001	.036	.722
	남편가사돌봄노 동만족도		.000	.000	.066	1.259	.000	.000	.074	1.410
직장	일만족도		.167	.080	.103	2.095*	.164	.080	.101	2.059*
	직장-가정 갈등		-.048	.034	-.075	-1.411	-.041	.034	-.064	-1.205
	복리후생		-.003	.046	-.003	-.060	-.008	.046	-.009	-.167
독립	일상생활 스트레스		.268	.056	.230	4.792***	.260	.056	.223	4.635***
매개	가족가치관						-.056	.037	-.072	-1.521
F			6.559***				6.192***			
R <sup>2</sup> (adj.R2)			.136(.115)				.141(.118)			

\*p <.05 \*\*p <.01 \*\*\*p <.001

## 2.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다변량)

1)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1)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모형의 F값이 2.652이고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를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18.7%였다. 또한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성역할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의 영향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beta = -.306, p < .05$ ).

[표 25]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n=220)

변수		구분	미취학 취업모(n=220)			
			<i>b</i>	SE	$\beta$	<i>t</i>
인구사회학적	연령		.179	.117	.168	1.521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719	1.344	-.058	-.535
	주관적 건강상태		-.176	.670	-.029	-.263
	가구총소득		.000	.000	-.086	-.724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1	.001	.261	2.158*
	남편가사돌봄노 동만족도		.000	.000	.136	1.091
	양육비용		.006	.011	.060	.562
직장	일만족도		-.153	.219	-.084	-.699
	직장-가정 갈등		-.050	.089	-.068	-.558
	복리후생		.155	.099	.184	1.571
독립	일상생활 스트레스		-.362	.093	-.306	-1.977 *
F			2.652**			
R <sup>2</sup> (adj.R2)			.187(.074)			

\*p <.05 \*\*p <.01 \*\*\*p <.001

(2)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 결과가 [표 26]에 제시되었다.

Model 1과 Model 2 모두 F값이 각각 F=2.257, F=2.541 p값 (p<.05, p<.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Model 1은 통제변수와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미취학 취업모의 우울을 23.9%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단계 모델은 1단계에 비해 4.2%의 설명력이 증가한 28.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의 변화 폭을 살

펴보았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회귀계수는 성역할태도를 투입하였을 때 .402에서 .391로 낮아졌다. 이는 미취학 취업모의 성역할태도가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obel test를 검증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검증이 되었다. 따라서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낮아지면 성역할태도가 높아지고, 성역할태도가 높아지면 우울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6]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n=220)

변수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eta$	t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25	.104	-.026	-.245	-.063	.103	-.064	-.606
	교육수준	1.825	1.191	.160	1.532	1.974	1.167	.173	1.691
	주관적 건강상태	.311	.594	.055	.524	.348	.581	.062	.599
	가구총소득	-.8683E-5	.000	-.071	-.620	-6.302E-5	.000	-.052	-.458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0	.001	-.089	-.763	-.001	.001	-.149	-1.261
	남편가사돌봄노동만족도	-.3930E-5	.000	-.046	-.384	-6.554E-5	.000	-.077	-.649
	양육비용	-.006	.010	-.068	-.668	-.008	.009	-.082	-.816
직장	일만족도	.234	.194	.141	1.205	.266	.191	.160	1.395
	직장-가정 갈등	-.009	.079	-.014	-.119	.001	.077	.001	.013
	복리후생	.047	.087	.061	.538	.015	.087	.019	.170
독립	일상생활 스트레스	.504	.153	.402	3.295**	.491	.156	.391	3.139**
매개	성역할태도					-.208	.078	-.227	-2.133*
F		2.257*				2.541**			
R <sup>2</sup> (adj.R2)		.239(.133)				.281(.170)			

\*p <.05 \*\*p <.01 \*\*\*p <.001



2)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1)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모형의 F값이 1.565이고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표 27]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n=303)

변수		구분		미취학 전업모(n=303)			
				<i>b</i>	SE	$\beta$	<i>t</i>
인구사회학적	연령		.010	.052	.013	.198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355	.439	.055	.810	
	주관적 건강상태		-.117	.282	-.028	-.415	
	가구총소득		.000	.000	.076	1.137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0	.000	.081	1.083	
	남편가사돌봄노 동만족도		.000	.000	.125	1.632	
	양육비용		-.010	.010	-.063	-.943	
독립	일상생활 스트레스		.103	.074	.095	1.388	
F				1.565			
R <sup>2</sup> (adj.R2)				.055(.022)			

\*p < .05 \*\*p < .01 \*\*\*p < .001

(2)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변수가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8]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n=303)

변수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eta$	t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30	.056	-.034	-.533	-.029	.056	-.032	-.515
	교육수준	.343	.474	.046	.725	.381	.473	.050	.805
	주관적 건강상태	-.827	.305	-.173	-2.715**	-.839	.304	-.176	-2.761**
	가구총소득	.000	.000	.054	.863	.000	.000	.061	.973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1	.000	-.142	-2.041*	-.001	.000	-.135	-1.936*
	남편가사돌봄노동만족도	.000	.000	.218	3.066**	.000	.000	.229	3.215**
	양육비용	.005	.011	.031	.496	.004	.011	.025	.404
독립	일상생활 스트레스	.426	.080	.340	5.329***	.436	.080	.349	5.456***
매개	성역할태도					-.105	.071	-.091	-1.474
F		6.284***				5.856***			
R <sup>2</sup> (adj.R2)		.181(.152)				.188(.156)			

\*p <.05 \*\*p <.01 \*\*\*p <.001

### 3)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

#### (1)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모형의 F값이 5.351이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를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11.4%였다. 또한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성역할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의 영향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beta = -.219$ ,  $p < .001$ ).

[표 29]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n=1058)

변수	구분	초중고생 취업모(n=1058)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53	.049	-.051	-1.068
	교육수준	-.181	.368	-.025	-.493
	주관적 건강상태	.015	.258	.003	.057
	가구총소득	.000	.000	-.057	-1.040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1	.001	.096	1.892*
	남편가사돌봄노동만족도	.000	.000	.053	1.004
직장	일만족도	-.197	.084	-.118	-2.356*
	직장-가정 갈등	-.016	.036	-.024	-.455
	복리후생	.163	.048	.183	3.375**
독립	일상생활 스트레스	-.264	.059	-.219	-4.503**
F		5.351***			
R <sup>2</sup> (adj.R2)		.114(.093)			

\*p < .05 \*\*p < .01 \*\*\*p < .001

(2)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변수가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0]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n=1058)

변수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eta$	t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16	.047	-.01 <sub>6</sub>	-.340	-.019	.047	-.01 <sub>8</sub>	-.395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612	.350	-.08 <sub>7</sub>	-1.747	-.621	.350	-.08 <sub>9</sub>	-1.772
	주관적 건강상태	-.269	.246	-.05 <sub>1</sub>	-1.091	-.268	.246	-.05 <sub>1</sub>	-1.089
	가구총소득	-8.04 4E-5	.000	-.04 <sub>6</sub>	-.844	-8.555 E-5	.000	-.04 <sub>9</sub>	-.897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0	.001	.039	.779	.000	.001	.044	.873
	남편가사돌봄 노동만족도	.000	.000	.066	1.259	.000	.000	.069	1.310
직장	일만족도	.167	.080	.103	2.095*	.157	.080	.097	1.960*
	직장-가정 갈등	-.048	.034	-.07 <sub>5</sub>	-1.411	-.049	.034	-.07 <sub>6</sub>	-1.434
	복리후생	-.003	.046	-.00 <sub>3</sub>	-.060	.005	.047	.006	.112
독립	일상생활 스트레스	.268	.056	.230	4.792** *	.255	.057	.219	4.453* **
매개	성역할태도					-.049	.047	-.05 <sub>1</sub>	-1.052
F		6.559***				6.065***			
R <sup>2</sup> (adj.R2)		.136(.115)				.138(.116)			

\*p <.05 \*\*p <.01 \*\*\*p <.001

이상으로 가족가치관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취업모와 미취학 전업모는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가족가치관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초중고생 취업모는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역할태도 매개효과는 미취학 취업모에게서만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취학 전업모와 초중고생 취업모는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미취학 취업모는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 모두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중요시해야 될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다른 두 집단과 차별화되는 부분이었다. 또한 미취학 전업모에서도 가족가치관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미취학연령의 경우 가족가치관의 변인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 제 6 절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 1.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다변량)

1)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절변수 및 독립변수, 가족가치관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31]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n=220)

변수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eta$	t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4 2	.10 7	.04 3	.39 2	.012	.10 5	.01 2	.112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1.2 71	1.1 85	.11 1	1.0 73	1.730	1.1 67	.15 1	1.48 3
	주관적 건강상태	.15 2	.59 1	.02 7	.25 8	.368	.57 7	.06 5	.638
	가구총소득	.00 0	.00 0	-.1 81	-1. 57 5	.000	.00 0	-.1 13	-.98 7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 01	.00 1	-.1 97	-.6 86	-9.09 6E-5	.00 1	-.0 21	-.07 3
	남편가사돌봄노 동만족도	7.7 20 E- 5	.00 1	.02 4	.08 3	.000	.00 1	-.1 09	-.38 1
	양육비용	-.0 10	.01 0	-.1 11	-1. 05 5	-.010	.00 9	-.1 08	-1.0 65
직장	일만족도	-.0 08	.08 0	-.0 12	-.1 00	.040	.08 0	.06 0	.506
	직장-가정 갈등	.41 2	.18 3	.24 8	2.2 52 *	.226	.19 0	.13 6	1.18 7
	복리후생	.02 6	.08 8	.03 3	.29 2	.023	.08 5	.02 9	.267
조절변수	가족가치관	-.3 15	.10 8	-.3 23	-2. 92 4**	.034	.53 5	.03 5	.063
상호작용항	일상생활 스트레스					1.071	1.2 05	.85 3	.889
	일상생활 스트레스*가족 가치관					-.018	.03 2	-.5 31	-.55 0
F		2.116*				2.478**			
R <sup>2</sup> (adj.R <sup>2</sup> )		.228(.120)				.295(.176)			

\*p <.05 \*\*p <.01 \*\*\*p <.001

2)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의 주 효과는 확인하였으나, 조절변수 및 가족가치관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32]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n=303)

변수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eta$	t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43	.059	-.048	-.731	-.029	.056	-.032	-.514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013	.493	-.002	-.027	.339	.472	.045	.719
	주관적 건강상태	-1.130	.314	-.236	-3.593***	-.887	.304	-.186	-2.922**
	가구총소득	8.762E-5	.000	.042	.648	.000	.000	.088	1.348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2	.001	-.402	-1.675	-.002	.001	-.636	-2.725**
	남편가사돌봄노 동만족도	.001	.001	.392	1.627	.002	.001	.620	2.645**
	양육비용	-.001	.011	-.008	-.121	.002	.011	.013	.215
조절변수	가족가치관	-.109	.047	-.148	-2.342*	.274	.253	.371	1.082
상호작용항	일상생활 스트레스					1.277	.608	1.020	2.098*
	일상생활 스트레스 * 가족 가치관					-.024	.017	-.826	-1.453
F		3.151**				5.567***			
R <sup>2</sup> (adj.R <sup>2</sup> )		.100(.068)				.198(.162)			

\*p <.05 \*\*p <.01 \*\*\*p <.001



3)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절변수 및 독립변수, 가족가치관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33]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n=1058)

변수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eta$	t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11	.048	-.011	-.224	-.010	.047	-.010	-.208
	교육수준 고졸이하상 대졸이상	-.620	.358	-.088	-1.733	-.622	.350	-.089	-1.779
	주관적 건강상태	-.265	.253	-.050	-1.048	-.232	.247	-.044	-.938
	가구총소득	.000	.000	-.086	-1.557	-9.263 E-5	.000	-.053	-.962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2	.002	-.161	-.941	-.002	.002	-.164	-.978
	남편가사돌봄 동만족도	.002	.002	.249	1.446	.002	.001	.240	1.418
직장	일만족도	-.046	.035	-.071	-1.312	-.040	.034	-.062	-1.164
	직장-가정 갈등	.252	.079	.156	3.187*	.167	.080	.103	2.097*
	복리후생	-9.323 E-5	.047	.000	-.002	-.009	.046	-.011	-.204
조절변수	가족가치관	-.072	.037	-.093	-1.931*	-.063	.201	-.082	-.316
상호작용항	일상생활 스트레스					.241	.468	.207	.516
	일상생활 스트레스*가족 가치관					.000	.012	.017	.038
F		4.465***				5.667***			
R <sup>2</sup> (adj.R2)		.097(.075)				.141(.116)			

\*p <.05 \*\*p <.01 \*\*\*p <.001

## 2.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다변량)

### 1)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절변수 및 독립변수,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34]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n=220)

변수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eta$	t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47	.110	-.048	-.427	-.065	.107	-.067	-.610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1.347	1.222	.118	1.103	2.007	1.185	.175	1.694
	주관적 건강상태	.074	.607	.013	.121	.344	.584	.061	.589
	가구총소득	.000	.000	-.127	-1.076	-6.372E-5	.000	-.052	-.451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1	.001	-.183	-.620	2.686E-5	.001	.006	.021
	남편가사돌봄노 동만족도	.000	.001	-.047	-.158	-.001	.001	-.205	-.704
	양육비용	-.006	.010	-.066	-.622	-.008	.009	-.082	-.814
직장	일만족도	-.071	.079	-.107	-.910	-.001	.078	-.002	-.018
	직장-가정 갈등	.494	.189	.297	2.615*	.260	.193	.156	1.351
	복리후생	.024	.092	.031	.265	.013	.087	.017	.153
조절변수	성역할태도	.196	.103	.214	1.897	.253	.471	.276	.536
상호작용항	일상생활 스트레스					.568	.674	.453	.842
	일상생활 스트레스 * 성역 할태도					-.003	.029	-.067	-.096
F		1.590				2.237*			
R <sup>2</sup> (adj.R <sup>2</sup> )		.181(.067)				.282(.161)			

\*p <.05 \*\*p <.01 \*\*\*p <.001

2)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절변수 및 독립변수,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35]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n=303)

변수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eta$	t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4 <sub>3</sub>	.059	-.04 <sub>8</sub>	-.723	-.027	.056	-.03 <sub>0</sub>	-.474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01 <sub>5</sub>	.498	-.00 <sub>2</sub>	-.030	.334	.476	.044	.702
	주관적 건강상태		-1.1 <sub>33</sub>	.318	-.23 <sub>7</sub>	-3.565***	-.847	.306	-.17 <sub>7</sub>	-2.771**
	가구총소득		8.05 9E-5	.000	.039	.589	.000	.000	.059	.947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 <sub>2</sub>	.001	-.44 <sub>7</sub>	-1.845	-.003	.001	-.70 <sub>6</sub>	-3.002**
	남편가사돌봄 동만족도		.001	.001	.436	1.783	.002	.001	.699	2.938**
	양육비용		-.00 <sub>2</sub>	.012	-.01 <sub>3</sub>	-.198	.004	.011	.021	.343
조절변수	성역할태도		-.06 <sub>9</sub>	.075	-.05 <sub>9</sub>	-.915	.019	.380	.016	.049
상호작용항	일상생활 스트레스						.579	.480	.462	1.205
	일상생활 스트레스 * 성역 할태도						-.008	.024	-.16 <sub>8</sub>	-.325
F			2.250*				5.094***			
R <sup>2</sup> (adj.R <sup>2</sup> )			.081(.049)				.184(.148)			

\*p <.05 \*\*p <.01 \*\*\*p <.001

3)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의 주 효과는 확인하였으나, 조절변수 및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36]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n=1058)

변수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eta$	t	b	SE	$\beta$	t
인구사회학적	연령	-.025	.048	-.025	-.529	-.021	.047	-.021	-.444
	교육수준	-.639	.358	-.091	-1.786	-.561	.350	-.080	-1.604
	주관적 건강상태	-.307	.251	-.058	-1.222	-.226	.246	-.043	-.921
	가구총소득	.000	.000	-.081	-1.473	-6.797E-5	.000	-.039	-.713
가정적	본인가사돌봄 참여정도	-.001	.002	-.123	-.722	-.001	.002	-.095	-.566
	남편가사돌봄노동만족도	.002	.002	.220	1.284	.002	.001	.174	1.038
직장	일만족도	-.055	.034	-.086	-1.600	-.049	.034	-.077	-1.462
	직장-가정 갈등	.234	.080	.144	2.920**	.150	.080	.093	1.888
	복리후생	.021	.047	.024	.438	.001	.046	.001	.024
조절변수	성역할태도	-.092	.047	-.095	-1.977	.451	.228	.467	1.978
상호작용항	일상생활 스트레스					.927	.306	.796	3.025*
	일상생활 스트레스 * 성역할태도					-.032	.014	-.402	-1.232
F		4.485***				6.022***			
R <sup>2</sup> (adj.R <sup>2</sup> )		.097(.076)				.149(.124)			

\*p <.05 \*\*p <.01 \*\*\*p <.001

## 제 5 장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고찰하고 그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치관과 성역할태도와 같은 태도변인이 매개나 조절과 같은 중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탐색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를 중심으로 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와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 집단을 비교하여 각 집단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여성가족패널 6차년도(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 220명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 303명,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 1058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상정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총소득) 가정적 요인(본인가사돌봄노동시간, 남편가사분담만족도, 양육비용,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 직장 요인(일만족도, 직장-가정 갈등, 복리후생), 일상생활 스트레스로 나누어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미취학 취업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 특성

전체 연구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은 40대 이상이었는데, 이는 자녀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시기가 지나 사회 재진입이 이루어지는 연령대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대체로 좋음’ 이상이라고 답한 여성이 70.6%로 상당수가 주관적인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 생활을 선택할 때 신체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안윤숙 등(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인가사돌봄참여정도는 주중 108분으로 조성호 등(2018)이 분석한 평균

시간인 129.5분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61.1%로 통계청(2018)에서 발표한 41.5%보다 높은 수치였다.

각 집단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차이에서 미취학 취업모의 교육 수준은 (전문)대졸이상이 77.3%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또한 가구소득도 중상 이상이 80.4%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학력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득 형평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성명재와 김종면(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각 집단에 따른 가정적 요인의 차이에서는, 양육비용이 미취학 전업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취업모가 전업모에 비해 대리양육 및 시설 보육을 더 이용해야하는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편가사노동만족도,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즉 미취학 취업모는 초중고생 취업모에 비해 평균 연령대가 낮았고, 남편가사노동분담에 더 만족하고, 현대적 가족가치관 및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집단에 따른 직장 요인의 차이에서는 미취학 취업모의 일만족도 및 복리후생이 초중고생 취업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즉 같은 취업모여도 어린 자녀가 있는 미취학 취업모가 자신의 일에 대해 더 만족하고, 직장에서의 복리후생이 더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미취학 취업모는 다른 집단에 비해 학력이 높은 편이며, 남편의 가사노동에 만족하고, 현대적 가족가치관과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직장에서 일만족도가 높고 복리후생이 잘 갖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 요인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집단별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16.04점( $SD \pm 2.85$ )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Danielle et al., 2011; 이운주 외, 2012; Weitlauf et al., 2014)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어려 양육 및 가사 활동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는 소모할 일이 많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장-가정 갈등, 가구총소득, 일만족도, 가족가치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직장-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일만족도가 높을수록, 현대적인 가족가치관 성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직장내 갈등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가구소득의 경우는 소득이 높은 경우에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더 낮으므로, 가구소득이 낮은 미취학 취업모 개입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미취학 전업모의 경우 남편가사분담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 좋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취학 전업모의 경우에도 남녀 성역할에 있어서 가사일을 여성의 일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바, 부부간의 가사분담에 대한 역할을 정립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더 높은 경우에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낮았으므로, 미취학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개입시 학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 연령대가 동일한 미취학 취업모와 전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 영향요인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학 전업모는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도나 자신의 건강, 학력 등이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인 반면, 미취학 취업모의 경우 소득이나 직장-가정갈등 및 일만족도와 같은 직장 요인과 가족가치관이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는 개인적인 요인부터, 가족, 사회적 요인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서는 다방면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취학 취업모의 경우 직장 요인 관련하여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더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남편 가사분담만족도가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미취학 취업모가 어린 자녀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편 가사도움에 대한 요구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연구 결과 미취학 전업모의 경우에만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남편가사분담만족도가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미취학 취업모의 남편가사분담만족도가 가장 높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맞벌이를 하는 경우 남편이 가사분담이 높아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미취학 전업모의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의 가사는 부부의 역할에 맞게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초중고생 취업모의 경우 성역할태도가 높을수록, 직장-가정 갈등이 적을수록,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가치관 성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현대적인 가족가치관의 정립 및 평등한 성역할태도에 대한 인식 증가가 필요하고, 직장내 갈등이 줄어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가구소득의 경우는 높은 경우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더 낮으므로, 가구소득이 낮은 초중고생 취업모의 경우 개입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취업여부가 동일한 미취학 취업모와 초중고생 취업모 집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직장-가정갈등과 가구소득, 가족가치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의 다중역할을 감당하는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 직장-가정 갈등이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전 선행연구(최수찬 & 백지애, 2006; 진종순, 2015)와 일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직장-가정 갈등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Higgins, 2004) 수행 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직장-가정 양립과 건강에 관한 보다 활발한 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모에 있어서 가구소

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바, 소득이 낮은 취업모의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가족가치관 성향에 관해서는 최석만 외(200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현대적 가족가치관 인식이 높은 취업모는 직장가정이 병행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므로 직장가정의 역할전환을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인 의미의 가족가치관의 정립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취업모와 초중고생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요인에서의 차이점은, 두 그룹간의 직장요인이 동일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취학 취업모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통계청(2018)자료에서 보듯이 취업여성의 비율이 M자형 곡선을 그리며 40세 이후에 높아지는 양상을 고려했을 때, 연령대가 높은 초중고생 취업모의 경우 경력단절 후 재취업시 본인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만족도, 복리후생 등에서 미취학 취업모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향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국외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을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McClowry et al,(2000)은 8세에서 11세의 학령기 자녀를 둔 78명의 백인여성을 대상으로 경험적 방법을 기반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간 부족으로 인한 압박감이었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과 관리, 통합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접근으로써 단계적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

각 집단별 우울 수준을 단변량으로 분석한 결과 우울정도는 세 집단 간의 차이 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각 집단별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취학 취업모의 우울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족가치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감소하였으며,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증가하였다. 이는 김선아 외(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취업모의 우울수준은 가사활동, 수면 등의 물리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역할에 대한 만족도 및 남편과의 관계 등의 관계 중심적 변인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기존에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정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Nolen-Hoeksema et al., 1992; Compas et al., 1994)와도 일치하였다. 즉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해선 미취학 취업모가 일상에서 다발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각 영향요인을 고려한 보건학적 개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취학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미취학 전업모의 경우는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졌고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 좋을수록, 가족가치관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였다. 미취학 취업모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우울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여성이 신체적 건강상태에 따라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석임 외(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미취학 전업모의 경우에도 가족가치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바, 취업모 뿐 아니라 전업모의 경우에도 현대적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취학 전업모의 우울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미취학 전업모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현대적인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녀 연령대가 동일한 미취학 취업모와 전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가족가치관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의 우울 수준의 경감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가치관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초중고생 취업모의 경우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장-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고, 남편가사분담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Stuart & Garrison(2002)이 미국의 146명의 초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역할 균형이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와도 일치했다. 즉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과의 관계 및 전반적인 결혼생활 등이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장혜경과 김영란(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력수준과 우울과의 관계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다는 김일호와 천희란(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초중고생 취업모의 우울 경감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장-가정내 갈등을 줄이고, 남편이 가사노동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일 가정 양립에 관한 사회적 인식 조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은 학력이 더 낮은 경우 우울이 더 높으므로, 학력이 낮은 초중고생 취업모의 경우 개입시 학력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해석할 수 있다.

취업여부가 동일한 미취학 취업모와 초중고생 취업모 집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일상생활 스트레스로써 이는 미취학 취업모, 미취학 전업모, 초중고생 취업모 세 집단 간 모두 동일한 요인이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관계에서 가족가

치관과 성역할태도가 매개 역할이 나타나는지 검증한 결과,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인 인지요소인 자아존중감을 매개요인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본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김미례, 2007; 이윤주 & 김진숙, 2012; 최미례 & 이인혜, 2013; Hall, Kotch, Browne, & Rayens, 1996; Rice, Ashby, & Slaney, 1998), 가치관을 매개요인으로 본 연구는 전무하다. 자아존중감은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강석임 외, 2013), 가족과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내는 변수인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를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맥락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취학 취업모는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 모두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중요시해야 될 변인임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해석될 수 있다. 즉,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가족가치관 및 성역할태도의 인식을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미취학 취업모에게 있어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현대적인 가족가치관의 인식을 위한 개입과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인식할 수 있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고찰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취학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장-가정 갈등, 가구총소득, 일만족도, 가족가치관이었고, 가족가치관과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우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적인 검증 결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이들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도출한 보건정책학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관심을 갖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우울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해선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는 개인적 대응 역량이나 사회적 지지를 갖고 있을 경우 완화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바(Pearlin et al., 1978), 여성이나 빈곤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역량이 낮기 때문에(조병희, 2015), 이들의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가치관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대적인 가족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족가치관은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서도 기능하지만 일상생활과 우울 사이에서 매개자적인 중간역할도 수행한다. 미취학 취업모의 경우는 성역할태도 또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미취학 취업모의 경우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의 인식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현대적인 가족가치관 및 평등한 성역할태도 인식을 원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초저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해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아이 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탄력근무제도,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등과 같은 유형의 지원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 부모교육, 인성교육등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하며 인식개선을 위해 이를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이나 지역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혼직장여성의 가족가치관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더불어 사회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사회 중심으로 남성 및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족가치관 정립 및 성역할태도 인식에 관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과 차별요인을 분석결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책 결정자들은 각 집단 간의 영향요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파악을 통해 개별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기혼여성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에 따른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이라는 여성에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들을 포함하는 확률표본에 근거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시도한 실증연구이다.

둘째,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를 중심으로 기혼 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해 면밀한 탐색을 하였다. 그간 여성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본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써 의의를 갖는다. 향후 기혼 여성의 일상의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에 관한 보다 확대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나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면적으로 연구한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즉,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의 나누어 미시적인 요인들로 세분화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와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모, 초중고생 자녀를 둔 취업모 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각각, 그리고 공통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요인의 연관성은 파악할 수 있으나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각 집단 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우울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수의 설정에 한계가 있다. 특히 자녀특성 변수가 빠져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후연구에서는 직접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스트레스 상황에 개인이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이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요인에 대한 측정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이는 패널자료를 사용한 한계점으로 이로 인해 연구모형 설계 및 매개요인으로 인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명확히 밝히는데도 제한이 있었다. 향후에는 매개요인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여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패널자료의 한계상 각집단의 대상인원 차이로 인한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선 각 집단별 대상자의 수를 고려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Aneshensel, C. S., Frerichs, R. R., & Clark, V. A. (1981). Family roles and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9-393.
- Barnett, R., Marshall, N. L., & Sayer, A. (1992). Positive-spillover effects from job to home: A closer look. *Women & health*, 19(2-3), 13-41.
- Behson, S. J. (2002). Coping with family-to-work conflict: The role of informal work accommodations to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7(4), 324.
- Broadnax, S. K. (2016). Role of Coping Self-Efficacy in Working Mothers' Management of Daily Hassles and Health Outcomes.
- Brommelhoff, J. A., Conway, K., Merikangas, K., & Levy, B. R. (2004). Higher rates of depression in women: role of gender bias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Women's Health*, 13(1), 69-76.
- Byron, K. (2005). A meta-analytic review of work - family conflict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169-198.
- Chamberlain, K., & Zika, S. (1990). The minor events approach to stress: Support for the use of daily hassle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1(4), 469-481.
- Chandola, T., Martikainen, P., Bartley, M., Lahelma, E., Marmot, M., Michikazu, S., . . . Kagamimori, S. (2004). Does conflict between home and work explain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n mental health? A comparative study of Finland, Japan, and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3(4), 884-893.
- Chan, Y. C. (1994).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mothers who physically abuse their children in Hong Kong. *Child*

- Abuse & Neglect, 18(3), 261–269.
- Cleary, P. D., & Mechanic, D. (1983). Sex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married peo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11–121.
- Compas, B. E., Grant, K. E., & Ey, S. (1994). Psychosocial stress and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In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509–523): Springer.
- Cordner G., & Scarborough, K.(2010). Information sharing: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policing with national and military intelligence. *Homeland Security Affairs*, 6(1). 1–19.
- Cox, J. L., Murray, D., & Chapman, G. (1993). A controlled study of the onset, duration and prevalence of postnatal depression.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3(1), 27–31.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42–105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 (1982).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2), 119.
- Dietch, K. V., & Bunney, B. (2002). The “Silent” disease: Diagnosing & treating depression in women. *AWHONN lifelines*, 6(2), 140–145.
- Eaves, G., & Rush, A. J. (1984). Cognitive patterns in symptomatic and remitted unipola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1), 31.
- Frone, M. R. (2000). Work–Family Conflict and Employee Psychiatric Disorders: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Brief Articl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6), 888.
- Greenhaus, J. H., Allen, T. D., & Spector, P. E. (2006). Health

- consequences of work - family conflict: The dark side of the work - family interface. In *Employee health, coping and methodologies* (pp. 61-98):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Greenhaus, J. H., & Powel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72-92.
- Grice, M. M., Feda, D., McGovern, P., Alexander, B. H., McCaffrey, D., & Ukestad, L. (2007). Giving Birth and Returning to Work: The Impact of Work - Family Conflict on Women's Health After Childbirth. *Annals of Epidemiology*, 17(10), 791-798.
- Griffin, J. M., Fuhrer, R., Stansfeld, S. A., & Marmot, M. (2002). The importance of low control at work and home on depression and anxiety: do these effects vary by gender and social class? *Social science & medicine*, 54(5), 783-798.
- Groncik, J. (1975).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ress. *Job stress and the police office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72.
-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 - 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
- Guarnaccia, C. A., & Zautra, A. (1996). The impact of ordinary major and small negative life events on older adults. *Aging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39-161.
- Gutek, B. A., Repetti, R. L., & Silver, D. L. (1988). Nonwork roles and stress at work. *Causes, coping and consequences of stress at work*, 2, 141-174.
- Hall, L. A., Kotch, J. B., Browne, D., & Rayens, M. K. (1996). Self-esteem as a mediator of the effects of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on depressive symptoms in postpartum mothers. *Nursing research*, 45(4), 231-238.

- Higgins, C., Dubury, L., & Johnson, K. (2004). Report Three:  
Exploring the Link Between Work-Life Conflict and Demands  
on Canada's Health Care System. Public Health of Canada.  
March.
- Holahan, C. K., & Holahan, C. J. (1987). Life Stress, Hassles, and  
Self Efficacy in Ag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6), 574-592.
- Kalliath, P., Hughes, M., & Newcombe, P. (2012). When work and  
family are in conflict: Impact on psychological strain  
experienced by social workers in Australia. *Australian Social  
Work*, 65(3), 355-371.
- Kanner, A., Coyne, J., Schaefer, C., & Lazarus, R. (1981).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1-39.
- Karpansalo, M., Kauhanen, J., Lakka, T., Manninen, P., Kaplan, G., &  
Salonen, J. (2005). Depression and early retirement: prospective  
population based study in middle aged men.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59(1), 70-74.
- Keith, P. M., & Schafer, R. B. (1980). Role strain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483-488.
- Kendler, K. S., Neale, M. C., Kessler, R. C., Heath, A. C., & Eaves,  
L. J. (1992). Major depression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ame genes,(partly) different environm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9), 716-722.
- Kraaij, V., Garnefski, N., & Maes, S. (2002). The joint effects of  
stress, coping, and coping resources on depressive symptoms  
in the elderly. *Anxiety, Stress & Coping*, 15(2), 163-177.
- Kaur, N., Panwar, N., Thind, H. S., & Farooqi, M. I. (2012). A  
comparative study of working and non-working married  
women : Effect of anxiety level on life satisfaction. Indian

- journal of psychology and mental health, 6(2), 169-178.
- Lambert, S. J. (1990). Processes linking work and family: A critical review and research agenda. *Human relations*, 43(3), 239-257.
- Lazarus, R. (1984). Puzzles in the study of daily hassl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7(4), 375-389. doi:10.1007/BF00845271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azarus, R. S., DeLongis, A., Folkman, S., & Gruen, R. (1985). Stress and adaptational outcomes: The problem of confounded measures. *American Psychologist*, 40(7), 770-779.
- Lundberg, U. (2005). Stress hormones in health and illness: the roles of work and gender. *Psychoneuroendocrinology*, 30(10), 1017-1021.
- Marshall, N. L., & Tracy, A. J. (2009). After the baby: Work family conflict and working mothers' psychological health. *Family Relations*, 58(4), 380-391.
- McClowry, S., Tommasini, N., Giangrande, S., Cottone, M. A., Durand, M., Ochs, E., & Seery, V. (2000). Daily hassles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preventive program.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iatric Nurses Association*, 6(4), 107-111.
- McCubbin, H. I. (1979). Integrating coping behavior in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37-244.
- McLanahan, S., & Adams, J. (1987).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1), 237-257.
- McLanahan, S., & Adams, J. (1989). The Effects of Children on Adults: Psychological Well-Being: 1957-1976. *Social Forces*, 68(1), 124. doi:10.1093/sf/68.1.124
- Mirowsky, J. (1996). Age and the gender gap i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2-380.
- Moss, N. E. (2002). Gender equity and socioeconomic inequality: a

- framework for the patterning of women's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54(5), 649-661. doi:10.1016/S0277-9536(01)00115-0
- Nancy(2009), After the Baby: Work-Family Conflict and Working Mother's Psychological Health, *Family Relations* 58 , 380-391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69.
-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199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05.
-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P. (199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05-422. doi:10.1037/0021-843X.101.3.405
- O'leary, A. (1990). Stress, emotion, and human immune fun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8(3), 363.
- Pearlin, L. I.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1-256.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7-356.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1.
- Press, J., Fagan, J., & Bernd, E. (2006). Child care, work,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low-income mo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27(5), 609-632.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ading, R., & Reynolds, S. (2001). Debt, social disadvantage and maternal depres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53(4), 441-453.
-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B.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304.
- Rout, U., Cooper, C., & Kerslake, H. (1997).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 comparative study. *Women in Management Review*, 12(7), 264--275.
- Selye, H. (1976). Stress without distress. In *Psychopathology of human adaptation* (pp. 137-146): Springer.
- Seto, M., Morimoto, K., & Maruyama, S. (2004). Effects of work-related factors and work-family conflict on depression among Japanese working women living with young children. *Environmental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9(5), 220.
- Stuart, T. D., & Garrison, M. E. B. (2002). The influence of daily hassles and role balance on health status: A study of mothers of grade school children. *Women & health*, 36(3), 1-11.
- Theorell, T., Ahlberg-Hulten, G., Jodko, M., Sigala, F., & De La Torre, B. (1993). Influence of job strain and emotion on blood pressure in female hospital personnel during workhours.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313-318.
- Voydanoff, P. (2005). Consequences of boundary-spanning demands and resources for work-to-family conflict and perceived stres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0(4), 491.
- Weitlauf, A. S., Vehorn, A. C., Taylor, J. L., & Warren, Z. E. (2014). Relationship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Autism*, 18(2), 194-198.
- Yearwood, E. L., & Siantz, M. L. D. (2010). Global issues in mental

- health across the life span: challenges and nursing opportunities. *Nursing Clinics*, 45(4), 501-519.
- 강석임, & 전희정. (2013). 기혼여성의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33, 161-188.
- 강희경, & 조복희. (1999). 3 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20(2), 41-55.
- 권석만. (2000). 우울증. 서울: 학지사.
- 김경륜, 조가영, 한윤영, & 김주영. (2014). 여성 사무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3(1), 91-120.
- 김기현. (2000).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9(1), 71-84.
- 김미례. (2006). 기혼 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7(3), 669-682.
- 김미례. (2007).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761-777.
- 김선아, 남경아, 정향인, (2006).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5(2), 179.
- 김선아, 김민영, 김민정, & 박성민. (2013). “일과 삶 균형” 정책과 정책부합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7(1), 201-237.
- 김성경. (2008).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5(1), 381-406.
- 김순안, & 김승용. (2011).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2, 109-129.
- 김영희, & 박형숙. (1992). 일부 도시주부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신체증상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2(4), 569-588.
- 김윤서. (2001). 취업주부의 가족관계와 가족 갈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천대학교.



- 김원, 황태연, 우종민, 강은호, 서용진, 김세주, 함병주. (2007). 주요우울증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WHO-HPQ (Health and Work Performance Questionnaire) 를 이용한 예비연구.
- 김일호, & 천희란. (2009). 기혼 여성의 직업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Employment and Married Women s Health in Korea; Beneficial or Harmful? *예방의학회지*, 42(5), 323-330.
- 김정선, & 신경림. (2004). 성인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2), 352-361.
- 김정애. (2014). 障碍人 文化藝術 活動 促進方案에 관한 研究. (국내박사 학위논문), 慶南大學校,
- 김정엽, & 권복순. (2007). 노인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37, 111-130.
- 김정희. (1985).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Depression and Coping with Stress]. *社會科學研究*, 12(-), 167-177.
- 김진이. (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만성적 스트레스 경험이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 25-55.
- 김진이. (2016). 중년 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영적 안녕과 대처기제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aily Hassle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Women: Focusing on the Mediation and Buffering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and Coping Styles]. *한국가족복지학*, 54(0), 41-75.
- 김진이, & Jean Ie, K. (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만성적 스트레스 경험이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mpact of Acute Stress and Chronic Stress Experience on Depression in Low-income Mothers with Children ). *한국가족복지학*, 25, 25.
- 김현동, & 김명희. (2011). 기혼여성직장인의 가치관에 따른 직장과 가정

- 의 긍정적 전이과정 탐색. [The Effect of Confucian Philosophy and gender egalitarian ideology on the Work-Family Balance of Married Working Women - Husband & Working Conditions as Partners -]. *여성연구*, 81(-), 33-67.
- 김혜신, & 김경신. (200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17-131.
- 김혜원. (1997).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11-127.
- 남석인, & 이희정. (2017).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2), 77-102.
- 노상철. (2008). 직장-가정 양립과 심혈관계 건강의 관련성.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도복늬. (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가족기능과 정신건강 및 부부적응. *정신간호학회지*, 13(4), 392-400.
- 류임량. (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전이(work-to-family spillover)에 대한 연령계층별 차이 연구. *페미니즘 연구*, 9(2), 119-156.
- 박경. (2004).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265-283.
- 박기남. (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한국여성학*, 25(2), 37-71.
- 박수미, & 한성현. (2004). 기혼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직업특성과 가족특성. *한국인구학*, 27(2), 155-175.
- 박인규. (2004). 직무스트레스와 직장-가정 갈등사이에서의 조직지원의 조절효과; 관광호텔종사원들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6(2), 211-222.
- 백희정. (2014).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건강증진행위 비교. [ORIGINAL ARTICLE : Comparative Study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5(4), 282-290.
- 송지은, & 한경혜. (2007). 직업, 가족 및 일-가족 전이가 취업자의 정신

- 건강에 미치는 영향-한국과 미국의 비교. *가족과 문화*, 19, 61-92.
- 신경림. (2001). 한국여성의 우울증상 실태조사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1(3), 391-400.
- 신아영, & 채정호. (2011). 우울 및 불안장애 환자의 정서조절방략. *인지행동치료*, 11, 41-52.
- 안윤숙, 김홍주, 이현진, & 하영진. (201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장 요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1), 157-185.
- 양소남, & 신창식. (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31(3), 70-103.
- 양심영. (2014). 학령 전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적응유연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 280-293.
- 양재곤. (1982). 정신과 환자의 자가평가 우울 척도에 관한 조사. *신경정신의학*, 21, 217-227.
- 유계숙. (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69.
- 이광주 (1988).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 & 김진숙.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5), 2229-2249.
- 이화영, & 함병주 (2013).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J Korean Med Assoc*, 56(6), 471-477.
- 이숙정, & 오재림. (2010).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직유효성, 직장 및 가정생활 갈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아시아여성연구*, 49(1), 7-39.
- 이안나, & 신호식. (1991).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37-154.
- 이윤주, & 김진숙.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5), 2229-2249.

- 이은실, & 최혜영.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및 배우자의 지지와 부모역할 만족도.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33-133.
- 이장호, & 김정희. (1988).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 25-45.
- 이지현. (201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영아의 초기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대학원
- 이재경, & 이은아.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생활에 대한주관적 인식.
- 이정은. (2010).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 적합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화영, & 함병주. (2013).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6(6), 471-477.
- 이희정. (2017).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종단적 궤적과 설명 변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6(3), 85-109.
- 임종호. (2014).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 임금근로자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5), 132-143.
- 전경구, & 김교헌. (2003). 한국 주부의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9.
- 정지나.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ers]. *한국생활과학회지*, 25(6), 665-679.
- 정혜선, 김혜영, 이현경, 이윤정, & 권영숙. (2001). 취업 기혼여성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및 대처전략에 관한 구조모형.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0(1), 93-109.
- 조금숙, & 조증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27-41.
- 조성호, 김지민(2018)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병희(2015),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집문당
- 조혜경. (2001). *병원 취업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욕구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8173545>

- 최미래, &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2), 363-383.
- 최은주, & 김춘경. (2017). 기혼직장여성의 일상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 검증. *여성연구*, 85-111.
- 최정숙. (2011). 일-가족 역할갈등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 214-247.
- 최석만 외(2006),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 민주주의”, 전남대학 출판부.
- 최효식, 연은모, 윤영, & 홍윤정. (201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사회 환경 변인 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한국영유아보육학*, 83, 51-75.
- 편은숙. (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
- 한은주 (2000)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갈등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한경혜, & 차승은. (2004). 가족 역할의 보상/비용과일· 가족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6(3), 105-130.
- 허순금. (2006).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홍경자, 탁영란, 강현숙, 김금순, 박호란, 광윤희, 최정례. (2002).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건강.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4), 570-579.
- 홍승아. (2008). 여성 삶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여성우리*(42), 8-15.
- 홍승아, 류연규, 김영미, 최숙희, 김현숙, & 송다영. (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 영양조사, 2016

통계청, 2018,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 조사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여성가족패널 <http://klowf.kwdi.re.kr/>

,

Abstract

# Influencing Factors on Daily Stress and Depression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Hyunjoo Joo

Dep.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creases but employment rate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decreases,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find it more difficult than ever to carry on with their career. A number of studies shed light on stress types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as being variously related with parenting, house chores and job, and the resulting depression. And family values and gender role attitude can also be considered as psychological variables which play an role of mediating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Although working mothers' stress and depression has been widely discussed in terms of parenting, home environment, work environment and other comprehensive factors, empirical studies lack in number considerabl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therefore, is to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n daily stress and depression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o further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two comparison groups were set up as well - full-time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and working mothers with elementary and middle-school children.

The present study is a cross-sectional study and made use of the sixth wave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2016). The subjects consisted of 220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303 full-time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and 1,058 working mothers with elementary and middle-school children. To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n daily stress and depression, sociodemographic factor, home factor and work factor were set as variables, based on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Elementary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main variables by group, cross-tabulation, t-test for independent sample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made to find out influencing factors on daily stress and depression by group, and hierarchical analysis was made to explore the functions of mediating and regulating effect of family values and gender role attitude.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significantly high daily stress level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compared to other groups, but no such significance was found in depression level. Influencing factors on daily stress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urned out to be work-family conflict, household gross income, work satisfaction and family values. Influencing factors on daily stress of full-time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urned out to be satisfaction on household labor division with spouse, self-assessed health condition and level of education. Influencing



factors on daily stress of working mothers with elementary and middle-school children turned out to be satisfaction on gender role attitude, work-family conflict, household gross income and family values. Depression-related factors for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ere found to be family values and daily stress; for full-time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daily stress, self-assessed health condition and family values; for working mothers with elementary and middle-school children, daily stress, satisfaction on household labor division with spouse, level of education and work-family conflict. In the case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both family values and gender role attitude operated as mediating variables between daily stress and depression.

With findings of the study that family values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significantly affect daily stress and depression, the researcher suggests development of family value establishment program and the need for its education. Furthermore, with identification of daily stress as an influencing factor on depression,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to manage stress and decrease depression is emphasized. Also, the study found that among married women, influencing factors on daily stress and depress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age of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It thus goes on to suggest taking microscopic approach according to children's age and employment status, when making policies for married women's mental health,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base data to decrease stress and depression in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so as to establish compatible work-family relationship.

**Keywords :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Daily stress, Depression, Family value, Gender role attitudes**

**Student Number : 2016-26921**